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평가로서의 감정 개념에 관한 연구

- 태도 이론의 옹호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김 민 건

평가로서의 감정 개념에 관한 연구

- 태도 이론의 옹호 -

지도교수 이 해 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김 민 건

김민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권 혁 성

부위원장 조 선 우

위 원 이 해 완

국 문 초 록

오늘날 감정을 향한 학문적 관심은 뜨겁다. 이는 많은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감정의 문제에 천착함에 따라 한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감정이 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합의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만 보인다. 감정은 왜 철학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감정이라는 주제 속에 심리철학, 인식론, 언어철학, 윤리학 등에서의 주요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감정은 믿음, 감각, 지각, 행위, 도덕적 판단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둘러싼 현대의 철학적 논의는 중요한 합의점 한 가지를 만들어냈다. 감정은 세계에 대한 일종의 '평가'(evaluation)라고 하는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최근 분석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해를 감정이 *가치(value)*와 관계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필자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감정 논의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논쟁점은 여전히 많다. 특히 감정이 과연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통해 가치와 관계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현대의 감정 이론들을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진영으로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고는 감정과 가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감정이 어떤 의미에서 '평가'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현대의 주요 감정 이론들을 '감정과 가치의 관계'라는 비교적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최근 괄목할 만하게 제시된 '태도 이론'(Attitudinal Theory)을 소개하고 옹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의의 대립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전망해 본다.

I장에서는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감정 개념의 적용 범위를 특정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향성',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을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로 제시한다. 이 세 가지 특성들은 감정을 느낌, 기분, 감각, 욕구 등으로부터 구별시켜줄 뿐 아니라, 감정 이론이라면 마땅히 설명해야 할 요건들로 기능함으로써 본고 전반에 걸쳐 검토하게 될 주요 이론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II 장에서는 감정을 평가로 이론화한 최초의 현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인지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인지주의는 감정을 가치에 대한 인지적 상태로 환원시킴으로써 감정과 가치의 체계적 관계를 정립하고, 그 결과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설명해 내는 탁월함을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인지주의가 개념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 그리고 이른바 '저항적 감정'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지주의가 상정하는 인지적 상태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감정의 현상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주의가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설명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임을 규명한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다루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감정의 지향성 및 현상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지각 이론을 검토한다. 필자는 여기서 지각 이론을 직접 지각 모델과 간접 지각 모델로 분류한 뒤, 직접 지각 모델의 경우 감정이 다양한 인식적 기저들에 대해 갖는 의존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프린츠(Prinz)로 대표되는 간접 지각 모델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가치와 표상적 관계를 갖는다는 그 핵심 주장이 감정의 지향적 특성에 관한 일부 사실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II 장과 III 장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감정 이론들이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취해온 방식, 즉 감정을 각각 인지와 지각이라는 단일한 심적 유형으로 동화시켜 이해하는 그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지적 상태가 되었건 지각적 상태가 되었건 개념적 내용이나 비개념적 내용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진 것으로 보는 한, 이들 이론들은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필자는 IV장에서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요청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적합한 방식을 제공하는 접근법으로 디오나(Deonna)와 테로니(Teroni)의 태도 이론을 소개하고 옹호한다. 기존의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태도 이론은 감정이 믿음이나 지각과 같은 단일한 심적 상태로 환원됨으로써 '평가적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평가적 태도' 유형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일종의 평가임을 주장한다. 필자는 태도 이론이 이와 같이 도모하는 내용 차원의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 이해로의 전환이 감정과 가치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태도 이론이 지각 이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태도 이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이해의 틀이 지각 이론의 반론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임을 뮐러의 수정된 이해의 도움을 받아 지지한다.

주요어: 감정, 감정철학, 분석철학, 심리철학,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학 번: 2017-26044

목 차

머리말 1

I. 예비적 고찰 6
1.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 7
1.1. 감정의 현상성 7
1.2. 감정의 지향성 9
1.3. 감정의 합리성 11
2. 감정의 범위 14

II. 감정 인지주의 20
1. 인지주의의 서막: 느낌 이론의 실패로부터 21
2. 인지주의 감정 이론 28
2.1. 인지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 및 장점들 28
2.2. 인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31

III. 감정 비인지주의: 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41
1. 직접 지각론 43
1.1. 지각 모델을 위한 논변 43
1.2. 지각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49
2. 간접 지각론: 프린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57
2.1.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 58
2.2. 프린츠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68

IV. 감정 태도주의 76
1. 태도 이론: 디오나와 테로니의 입장을 중심으로 78
1.1. 태도 개념으로서의 감정 78
1.2. 내용 차원의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 이해로 83

1.3. 신체적 태도로서의 감정 91
2. 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97
2.1. 지각 이론의 반론 97
2.2. 수정된 태도 이론의 가능성 104
2.3. 태도 이론의 장점 109

맺음말 112

참고 문헌 117

Abstract.....122

머리말

인간의 삶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매일 같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고대 철학은 인간의 감정을 둘러싼 심도 있고 방대한 논의들을 그 유산으로 남겼다. 스피노자, 데카르트, 흄과 같은 근대 철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도덕철학 혹은 정치철학이 요구하는 감성적 인간의 정립을 위해 감정(정념)의 문제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감정이 본격적으로 철학의 중심 주제로 자리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감정을 이성(reason)의 대립항인 감성(sensibility)의 산물로 여겨온 서양철학의 이분법적 전통 아래에서, 감정은 행복한 삶을 위해 절제되어야 하거나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해주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감정을 논구했던 고대 및 근대 철학자들은 어떤 공유된 담론의 장 안에서 자신들의 논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시켰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전제와 목적을 가지고 각자 나름의 사유를 독자적으로 펼쳤던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사유의 결과물들은 서로 단절된 형태로 파편화되어, 감정이 철학에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이루는 데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근대 이후 팽배했던 과학실증주의 및 행동주의는 인간의 내적인 정신 상태들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배척시켜버리는 시기를 초래했고, 그 결과 감정은 20세기에 이르러서까지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철학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이성 바깥 영역을 향한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감정의 본성을 밝히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심리학, 인지 및 신경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감정을 향한 관심이

무르익은 오늘날, 분석철학 내에서도 감정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현대의 분석철학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치열한 공방과 논쟁을 통해 감정에 관한 합의된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감정이 어떤 공통 원리에 의해 유발되며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는지, 더 나아가 감정의 인식론적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내놓음으로써, 이를테면 슬픔, 기쁨, 분노, 환희, 증오, 사랑, 분개, 질투, 연민, 두려움 같은 용어들로 지칭되는 수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 현상들이 어떻게 '감정'(emotion)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 범주 아래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답변을 내놓으려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감정을 세계에 대한 일종의 '평가'(appraisal, evaluation)로 보는 데 동의한다. 감정적 반응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주체의 목표나 기대에 비추어 처리하는 기제임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실증적 연구들도 감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현대의 감정 이론에 적극 반영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지속된 격론과 논쟁에서 거듭 확인되듯이, 감정에 관한 깔끔하게 정돈된 이론은 결코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감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징 및 양상들을 포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그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는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의 감정 이론들은 크게 인지주의(cognitivism) 진영과 비인지주의(non-cognitivism) 진영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인지가 감정에 반드시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감정이란 언제나 개념적이고 명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능력이다. 반면 인지와 감정을 별개의 작용으로 보는 비인지주의적 입장의 경우, 감정은 자동반사적 정보처리 방식의 (신체적) 지각 능력에 가깝다.

이와 같은 대립은 자칫 서양철학의 이성중심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이원론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립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감정을 세계에 대한 '평가'로 보는 현대적인

이해를 공유한다는 점에 관한 한 여전히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의 감정 이론들은 '이성의 합리성'과 '감정의 비합리성'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감정에 대해 이성에 비견될 만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기획의 일환일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감정을 평가로 이론화하는 방식은 감정이 합리성과 무관한 어떤 맹목적인 힘이라는 견해나 감정이 우리의 지적·반성적 능력보다 하등하거나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현상이라는 고전적 견해에 맞서, 감정을 그 자체의 원리와 역할을 지닌 독자적인 능력으로 격상시켜 이해하는 데 특히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정이 평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관점은 감정이 바로 *가치(valu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우리의 언어적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가늠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테면 '역겨운 것'(the disgusting), '후회스러운 것'(the regretful), '감탄스러운 것'(the admirable)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러한 평가적 서술들은 모두 우리의 감정 경험을 지칭하는 어휘들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이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역시 감정과 가치 간에 적어도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감정과 가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따라서 감정이 어떤 의미에서 '평가'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현대의 주요 감정 이론들을 '감정과 가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최근 괄목할 만하게 제시된 '태도 이론'(Attitudinal Theory)을 소개하고 옹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자는 감정철학에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대립구도가 나타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립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I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감정 개념의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로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는 감정을 느낌, 기분, 감각, 욕구 등으로부터 구별시켜줄 뿐 아니라, 감정 이론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요건들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이다.

II 장에서는 감정을 평가로서 이론화하는 최초의 현대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인지주의 이론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인지주의는 감정을 인지적 상태로 환원시킴으로써 감정과 가치의 체계적 관계를 확립해내고, 그 결과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설명해 내는 탁월함을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인지주의가 개념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 그리고 이른바 '저항적 감정'을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지주의가 상정하는 인지적 상태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한편 감정의 현상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주의가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설명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힐 것이다.

따라서 III 장에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다루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지각 이론을, 직접 지각론과 간접 지각론으로 분류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각론의 경우, 감정이 다양한 인식적 기저들에 대해 갖는 의존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간접 지각론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가치와 표상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감정의 지향적 특성과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II 장과 III 장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감정 이론들이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취해온 방식, 즉 감정을 각각 인지와 지각이라는 단일한 상태로 동화시켜 이해하는 그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지적 상태가 되었건 지각적 상태가 되었건 개념적 내용이나 비개념적 내용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진 것으로 보는 한, 이들 이론들은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언제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필자는 IV 장에서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요청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적합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디오나와 테로니의 태도 이론을 검토하고 옹호할 것이다. 태도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감정이 믿음이나 지각과 같은 단일한 심적 상태로 환원됨으로써 '평가적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평가적 태도' 유형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일종의 평가라는 입장이다. 필자는 태도 이론이 도모하는 이러한 내용 차원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 이해로의 전환이 감정과 가치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개념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태도 이론이 지각 이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태도 이론이 제시하는 감정에 대한 이해의 틀이 지각 이론의 반론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임을 뮐러의 수정된 태도 이론의 도움을 받아 지지할 것이다.

I. 예비적 고찰:

감정에 대한 연구가 까다롭고 난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정의 본성을 포착해 내려는 무수히 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된 견해를 도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정도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력한 이유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감정'(emotion)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부터가 상당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맥락에서 느슨하게 사용하는 감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통칭하여 가리키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감정에 관한 학문적 논의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연구자에 따라, 또는 각종 학문 분야에 따라 감정과 관련된 개념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 실정은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1]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장에서는 감정 개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감정 이론들이 설명해야 할 문제들을 규정하는 예비적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 철학적 문헌에서 공유되는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을 짚어본 뒤,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 감정과 감정으로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여러 다른 현상들을 서로 구별해 보도록 할 것이다.

---

[1]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철학자들은 감정 현상이 하나의 단일한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전망 자체를 회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의론에 따르면, 감정은 자연종(natural kind) 개념도 아니고 별개의 심리학적 부류를 형성하지도 못하므로, 하나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의 보다 극단적인 형태는, 감정이라고 하는 일상적 개념 자체가 우리의 학문 체계, 특히 자연과학적 탐구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감정 제거주의' 입장으로까지 나타난다. 감정의 자연종 지위를 둘러싼 논쟁과 제거주의에 관한 논의로는 천현득, 「감정은 자연종인가? – 감정의 자연종 지위 논쟁과 감정 제거주의」, 『철학사상』 2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pp. 317-346 참고.

1.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

감정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감정의 핵심적 특성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논의 대상인 '감정'이라는 현상의 범위를 좁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특성들이 바로 현대 감정 이론들이 적극 해명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보자면, 감정의 특성들이 하나의 감정 이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감정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감정의 핵심적 특성들이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그것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현상성(phenomenology)
(2) 지향성(intentionality)
(3) 인식적 합리성(epistemological rationality)

말하자면 감정은 현상성과 지향성, 그리고 합리성을 가진 심적 상태라는 것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특성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1.1. 감정의 현상성(phenomenology)

모든 감정 경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느껴지는 현상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감정에는 이러저러하게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감정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철학자들은 감정이 '현상성' 또는 '현상적 느낌'을 갖는다고 말한다. 예컨대 '분노의 느낌',

‘기쁨의 느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의 현상성이다. 감정의 현상성은 사실상 감정을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감정 연구자들이 이것을 감정의 본성과 직결되는 핵심으로 여겨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의 현상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기쁨에 ‘가슴이 들뜬다’, 두려움에 ‘떤다’, 슬퍼서 ‘목이 메인다’, 공포감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등과 같은 관용구로 우리의 감정 경험을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감정의 현상성이 우리의 신체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화(anger) 감정의 현상적 느낌은 심박수의 증가, 빨라진 호흡 속도, 혈압 상승, 급작스러운 아드레날린 분비 등과 같은 생리적 변화들을 통해 기술될 수 있다. 특정한 감정 유형에 특징적인 근감각 및 근육 피드백 또한 감정의 현상적 느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화가 날 때 일어나는 근육 수축의 느낌과 안도감에서 오는 근육 이완의 느낌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감정의 현상성과 관련한 그러한 신체적 변화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felt)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느낌’(feeling)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지를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낌과 감정이 동의어로 사용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감정의 현상적 느낌은 감정 주체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일인칭적 특수성 또는 사밀성(privacy)을 지니며, 또한 같은 유형의 감정이라도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나의 친구가 느끼는 즐거움이 과연 그 질적 특성에 있어서 완전하게 동일한 감각질(qualia)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같은 즐거움이라도 잔잔하고 은은하게 다가오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황홀하거나 짜릿하게 경험되는 즐거움도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감정이더라도 그 강도나 느껴지는 바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특정해서

부르기 위해 '느낌'이라는 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감정의 현상적 느낌은 쾌나 불쾌(pleasure or displeasure)의 느낌까지도 포함하는 듯하다. 기쁨이나 감탄과 같이 느낌이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공포나 혐오와 같이 그렇지 않은 감정도 있다. 감정에 관한 문헌들에서는 이를 '유인가'(valence)라는 용어로 칭하는데, 이 말은 감정이 긍정적인 값이나 부정적인 값 중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 즉 감정의 현상적 느낌은 그 유인가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정 이론은 신체적 느낌에 더불어 쾌나 불쾌의 느낌을 포함한 감정의 현상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 조건 중 하나가 된다.

1.2. 감정의 지향성(intentionality)

오늘날 감정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지향적인 신체적 느낌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대상을 향한 지향적 상태로서의 감정으로 옮겨왔다.[3] 따라서 감정이 현상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만큼이나 현재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정의 '지향성'이다. 즉 감정은 언제나 '무언가에 관한 것'(about something)이라는 의미에서 지향적이라 여겨지며, 이는 달리 말해 감정이 언제나 '지향적 대상'(intentional object)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지, *누구*에 애정을 느끼는지를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다는

---

[2] 모든 감정이 본유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놀라움(surprise)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 보기 어려운 감정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예다. 그러한 경우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 어떤 유인가가 주어지는지에 따라 해당 감정의 현상성이 긍정적이게 되는지 또는 부정적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이러한 관심 이동이 본격화된 것은 제임스의 느낌 이론의 실패와 함께 인지주의 이론이 득세하게 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감정이 지향적 대상을 갖는다는 주장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나 자극이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물론 많은 경우 감정의 지향적 대상은 동시에 그것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의 그리움의 (지향적) 대상은 옛 애인일 수 있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은 옛 애인의 선물이라던지 그를 닮은 다른 누군가를 마주치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그 지향적 대상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먼저 감정은 과거, 현재, 미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는 현재 지각하고 있거나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곰을 무서워할 때) 과거에 경험했던 (몇 년 전 만났던 사람과의 다툼을 떠올리면서 후회할 때), 또는 미래에 일어날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을 느낄 때)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나 겪을 수도 없는 사태가 우리 감정의 대상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뉴스의 사건에 대해 분개하거나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해 연민을 느낄 때). 말하자면 감정은 그 시제나 종류에 있어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대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감정의 지향적 대상은 언제나 평가적인 방식으로 감정 주체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감정이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도 바로 감정의 이러한 지향적 특성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나는 친구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기심을 느낄 수 있다. 이때 그 사실은 아마도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인 반면, 친구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나는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시기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것을 슬픈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시기심이 아닌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다양한 유형의 감정들을 이루는 평가(evaluation)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감정의 지향성이 함축하고 있는 바이다.

요컨대, 감정의 지향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감정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지향적 대상을 갖는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감정이 그 대상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감정 이론은 감정의 지향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감정의 합리성(rationality)

감정 연구의 초점이 지향적 상태로서의 감정으로 옮겨옴에 따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감정이 합리성의 기준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정의 지향적 특성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주어진 감정 반응에 대해 그것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누군가가 가지게 된 감정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합리성 또는 인식적(epistemic) 합리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의 인식적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4] 첫 번째로 감정은 '옳음 조건'(correctness condition)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의 대상이 된다. 만약 누군가가 전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옳지 않은 부적합한 감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감정은 믿음이나 지각과 같은 심적 상태들과 유사하다. 즉 감정은 객관적 사실(fac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감정이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음에서-세계로의' 방향적합성('mind-to-world' direction of fit)을 갖는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

[4] Julien Deonna & Fabrice Teroni,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Routledge (2012), pp. 6-7.

두 번째로 감정의 합리성은 감정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된 *이유(reason)*에 비추어 그것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신뢰할 만한 친구로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정황을 목격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감정일 테지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된 불륜 장면을 보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감정에 가까울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고 때로는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기할 만한 점은, 어떤 감정이 설령 옳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의 불륜 장면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갖는 배신감은 정당화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남편이 실제로 불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의 배신감은 첫 번째 합리성의 의미에서는 옳은 감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5]

그렇다면 성공적인 감정 이론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파악되는 감정의 합리적 국면들까지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정과 가치 판단 또는 도덕 판단의 형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오래된 견해, 즉 감정의 인식론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감정 이론이 감정의 합리성을 얼마나 잘 구분하여

[5] 한편, 이러한 인식적 기준들 외에도, 감정은 도덕적(moral), 타산적(prudential) 이유 등과 같은 외재적 기준들에 의해 그 합리성이 평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을 비하하는 농담을 듣고 내가 비하의 대상이 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터뜨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 농담이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나의 그러한 감정적 반응은 인식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적절하거나 합리적인 것일 수 있지만, 도덕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감정의 합리성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외재적 차원이 아닌 앞선 두 가지 인식적 차원에서의 합리성만을 의미한다. 외재적 차원에서 감정의 적절성(appropriateness)과 내재적(인식적) 차원에서 감정의 적합성(fittingness)이 구분된다는 논의로는 Justin D'Arms & Daniel Jacobson, "The Moralistic Fallacy: On the 'Appropriateness' of Emotion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1.1 (2000), p. 65-90 참고.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는 감정의 현상성이나 지향성 못지않게 현대 감정 이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6]

정리하자면, 이상으로 살펴본 감정의 현상성과 지향성, 그리고 합리성은 모두 감정 이론이 설명해야 할 요건들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는 감정 이론의 성패를 가리는 일에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 감정과 여타 다른 정감적 상태들을 구별지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논의 대상인 감정 현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

[6] 현재 대부분의 감정 이론가들은 감정이 세계 속 사태와의 적합성(fittingness)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있다는 (혹은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 합리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로날드 드 수사(Ronald de Sousa)는 이를 '감정 진리'(emotional truth)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범, 예컨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치에 관한 조금씩 다른 입장들 – 예컨대 다양한 버전의 가치 실재론(value realism), 가치론적 전체론(axiological holism), 상대주의 등 – 이 전제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합리성 개념이 감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직관에 기반한 반론도 있다. 예컨대 양선이는 감정이 방향적합성의 측면에서 설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의 적절성 내지는 적합성이 감정 주체 개인의 서사에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준을 감정에 적용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Sunny Yang, "Do Emotions Have Directions of Fit?", *Organon F* Vol. 23:1 (2016), pp. 32-4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감정을 가치와 연결된 일종의 평가로 이론화하려는 현재의 동향 속에서 예외적인 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가치에 관한 상대주의적 입장을 넘어서 반응의존이론과 같이 강한 주관주의를 전제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 전망이 불확실해 보인다. 가치에 관한 다양한 버전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Deonna & Teroni, op. cit. (2012), pp. 42-49. 한편, 감정에 대응되는 가치가 반응의존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설명으로는 Jesse Prinz,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63-64.

2. 감정의 범위

우리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감정'(emo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느낌(feeling), 기분(mood), 동요(agitation), 감각(sensation), 정감·정서(affection), 감수성(sentiment)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슬픔(감정)을 느끼고, 우울(기분)을 느끼며, 놀라움(동요)을 느낀다고 말한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이 용례상의 혼동은 그것들이 모두 '느껴지는' 무엇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7] 말하자면 이것들은 모두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성을 가진 상태들이고,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맥에서 이들을 굳이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감정과 다른 정감적 상태들을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감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우리는 통용되는 분류법에 따라 이 용어들이 지칭하는 현상들을 보다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인 맥락에서 감정이라고 느슨하게 통칭하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논의 범위 밖이라고 할 수 있을 '감정적 성향'(disposition)들을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세 가지 핵심적 특성들이다.

먼저 감정과 *감각*이 어떻게 범주적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감각은 느끼는 특정한 신체 부위가 있고, 신체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반면 감정은 그러한 감각(들)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신체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예컨대 우리는 공포를 느끼면서 입 안이 마를 수 있지만 입 *안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7] 학문 분야 또는 철학자들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감정은 기분, 동요와 함께 정감적 상태(affective state)의 하위 범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Peter Hacker,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mo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6:3 (2004), p. 201 참고.

아니며, 공포 감정이 입이 마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즉 감정과 감각은 둘 모두 신체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감정은 외부 대상을 그 지향적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감각은 단지 그것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와 관련하므로, 외부 세계와 연결된 지향적 대상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 감정에 비해 합리적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어떤 신체적 감각을 옳거나 그른 것,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 다소간의 부자연스러움이 따르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감각을 외부 세계와의 적합 여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하다.[8]

기분 또한 지향성에 있어서 감정과 특징적으로 구분된다. 기분은 느껴지는 바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막연할 때, 즉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있지 않을 때의 정감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우울하거나 행복한 기분을 가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상태에 비추어 그저 막연하게 우울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점은 기분과 감정이 귀속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분의 귀속('그는 하루 종일 침울한 기분이었다')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완전해 보이는 데 반해,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감정 귀속('그는 하루 종일 분노에 차 있었다')은 정보적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측면이 있거나, 혹은 그럴 때의 상태는 그저 '기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분은 현상성은 있으나 지향성은 없는 상태로 이해되며, 바로 이 점에서

[8] '한지감'(phantom limb sensation)과 같이 절단된 팔다리가 여전히 신체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의 경우 해당 감각이 잘못된 또는 옳지 않은 것으로 말해질 수 있으므로, 감각 또한 합리성의 기준을 갖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합리성의 기준이 외부 세계로부터 마련되지 않는 것일 뿐 그것이 신체적 사실과의 적합 여부에 따라 마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각에 합리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감각이 합리성의 측면에서 감정과 구분된다는 견해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감정과 구분된다.[9]

한편, 감정은 *감정적 성향(affective disposition)*과도 구분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영희는 철수에게 화가 나 있다'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희가 철수에 대해 지금 바로 그 순간에 '화'라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화 *에피소드(episode)*로서, '발생적 감정'(occurrent emotion)이라고도 불리는 상태이다. 반면 두 번째 의미는 영희가 당장 마음 속에서 불같이 끓어오르는 듯한 화의 현상적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맞은 조건이나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컨대 철수가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영희가 가진 '감정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10] 감정 에피소드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감정적 성향에 대해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했는지를 물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성향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서 생명력이 있는 자립된(self-contained) 현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감정적 성향은 감정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지향성과 합리성은 가지지만, 느껴지는 특질(felt quality)이 없다는 의미에서 현상성을 결여하고 있다. 현대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감정 연구들은 이러한 성향으로서의 감정보다도, 현상성을 갖는 에피소드로서의 발생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

[9] 물론, 같은 정감적 범주(affective domain)에 해당하는 상태들로서 감정과 기분은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기분은 종종 정감적으로 유관한 계열의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기분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게 되는 감정 에피소드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예컨대 나의 언짢은 기분 자체는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분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쉽게 화가 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로,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 에피소드들을 겪고 난 뒤 나는 언짢은 기분에 휩싸일 수 있다.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4.

[10] 찰리 브로드(Charlie Broad)나 니코 프리다(Nico Frijda)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성향을 바로 '감수성'(sentiment)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Ibid., p. 8.

따라 본 논문에서도 감정을 감정적 성향과는 구분하여 파악한다.[11] [12]

마지막으로 감정은 *욕구·욕망(desire)*과도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욕구는 우리의 행동을 위한 동기적 상태라는 점에서 감정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넓은 의미에서의 일부 욕구 에피소드, 가령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은 욕망이나 바램에는 특별히 현상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식욕, 성욕, 배설욕, 수면욕으로 대표되는 생리적 욕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신체적 느낌을 바탕으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감정이 행동을 동기부여한다고 통념과 일맥상통한다.[13]

---

[11]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 성향이 감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감정적 성향은 기분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감정 상태의 활성화를 야기한다. 영희는 철수에게 오랫동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를 직접 대면할 경우 화 감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의 감정적 성향은 여러 유형의 감정 에피소드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영희가 철수를 사랑하는 경우 (감정적 성향), 영희는 단 하나의 특정한 감정 – 예컨대 이성적 애정 – 뿐만 아니라, 감탄, 정애(warm affection), 성적 황홀감(erotic ecstasy)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경향을 갖게 된다. 심지어 그러한 감정적 성향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질투, 비탄 등 정반대 계열의 감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감적 상태의 범주 아래 다양한 감정적 성향들과 발생적 감정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Kevin Mulligan, “From Appropriate Emotions to Values”, *The Monist* 81.1 (1998), pp. 161-188 참조.

[12] 인식론에서 믿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구분이 적용된다. 예컨대 나는 누군가가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성향적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언제나 나의 의식 하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그러한 성향적 믿음은 이를 테면 그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나는 그에 상응하는 발생적 믿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경우에는 성향적 믿음을 믿음으로 보는데 비해, 감정적 성향은 엄밀히 말해 감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13] 아마도 바로 이 이유에서 일부 철학자들은 욕구가 감정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보는 접근, 구체적으로는 믿음과 욕구의 쌍(pair) 내지는 결합(combination)이 곧 감정이라는 분석을 개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혼합 이론(mixed theory)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예컨대 내가 독사를 무서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앞에 독사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적 믿음과 그 독사를 피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결합되어야만 한다. 비록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

그러나 감정과 욕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감정과 욕구가 서로 정반대의 *방향 적합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관련한다. 감정과는 달리, 욕구는 주어진 세계나 사태를 그것이 표상하는 바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욕구는 '세계에서-마음으로의' 방향적합성('world-to-mind' direction of fit)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나에게 흡연 욕구가 일어난 경우, 그 욕구는 나의 몸이 니코틴을 흡수하지 않은 그러한 사태에서 니코틴을 흡수한 사태로 바꾸기를 목표로 하며, 그것은 내가 흡연을 할 때 비로소 충족되거나 실현된다. 반면, 정반대의 방향적합성을 갖는 감정은 실현되거나 충족되는 무엇이 아니다. 나의 슬픔이나 공포 감정이 만족되었거나 충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감정이란 외부 대상과 관계하면서 마음에서-세계로의 방향적합성으로 특징화되는 그러한 지향적 구조를 가진 현상이다. 이러한 지향적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감정은 욕구와 달리 만족되거나 실현되는 무엇이 아닌, 옳거나 그른, 또는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상태로서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그것은 지향적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기분과 다르고, 느껴지거나 감각되는 현상적 에피소드 상태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감정적 성향과 다르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범위로 규정되는 감정이 어떻게 가치와 관계하는 것으로 이론화될 수 있는지이다. 결국 앞서 확립한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 지향적 대상은 언제나 평가적으로 주어진다는 지향성의 문제를 어떻게 감정의 현상성 및

의 이론들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곧 설명될 이유로 인해), 어쨌든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바는 그러한 시도들이 모두 감정이 욕구와 같은 행동촉구적(conative) 상태라는 전제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사례로는 Robert Gorden, *The Structures of Emotions: Investigations in Cognitive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Michelle Maiese, *Embodiment, Emotion, and Cogn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등을 참조.

합리성의 문제와 함께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핵심 과제인 셈이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이어질 장들에서는 오늘날 주요 감정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II. 감정 인지주의

앞선 예비적 고찰에서 정리하였듯이, 감정은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심적 현상이다. 현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그럴듯한 방식이 바로 감정을 일종의 *평가(evaluation)*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가치(value)*[14] 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한다.

본 장에서는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현대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지주의(cognitivism)를 다룬다. 감정 인지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오랜 기간 감정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주도한 이론으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시초는 스토아 학파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감정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직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지주의가 분석철학 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느낌 이론'(feeling theory)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견해에 대한 거센 반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인지주의의 시작과 그 득세는 느낌 이론의 실패와 불가분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먼저 느낌 이론이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였는지를 짚어 본 후에 인지주의 이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특히 이 논의에서는 인지주의 이론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지만, 동시에 인지주의 이론이 감정 논의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보고자 한다.

---

[14] 여기서 '가치'는 예컨대 '우정', '자유', '평등' 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추상적 이상(ideal)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철학적 맥락에서 이것은 대상이나 사건 또는 상황들이 예화하는(exemplify) 특정한 유형의 평가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농담은 '재미있음' 내지는 '유머러스함'이라는 평가적 속성, 즉 가치를 예화한다.

1. 인지주의의 서막: 느낌 이론의 실패로부터

제임스는 1884년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사실을 지각하면 바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이 곧 감정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감정이란 바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느낌 이론으로 지칭되는 제임스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와 함께, 현대 감정 이론을 정초지운 것으로도 흔히 이야기된다.

그런데 감정이 곧 느낌이라는 주장은 무엇 때문에 논쟁적인가? 우선 우리는 이 주장이 근대의 전통에서 통용되고 있던 상식적 입장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 철학자들은 감정이 (보다 정확히는 정념passion이)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념(idea/thought)이나 욕구와 같은 지성적 능력이 함께 고려될 때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의 상식에서 보면 "우리는 불행하기에 슬퍼서 우는 것이고, 곰과 마주쳤기에 놀라서 도망치는 것이며, 적에게 모욕을 당했기에 화가 나서 때리는 것"[15]이었다. 그러나 감정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주체의 내면적 자각(internal awareness), 지각, 또는 느낌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의 느낌 이론은 위와 같은 통상적 이해가 함축하는 인과적 순서를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제임스에 따르면,

> 후자의 심적 상태[감정]는 전자[불행, 곰과의 마주침, 모욕]에 의해 즉각적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bodily manifestations)가 둘 사이에 개입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는 [불행할 때] 울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모욕을 당할 때]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며, [곰과 마주칠 때] 떨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무섭기 때문에 울거나 때리거나 떠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변화 없는 지각이 가능하다면,

[15] William James, "What is an Emotion?" *Mind,* Vol. 9, No. 34 (1884), p. 190.

> 그러한 지각은 감정적 온기를 잃고서 창백해진 순수한 인지적 형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곰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는 받아 치는 것이 옳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때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를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6]

즉, 감정으로 인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다는 제임스의 논제는 사고 실험에 기초한 그의 또 하나의 잘 알려진 논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분리 논증'(subtraction argument)이라고 알려진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만약 우리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그 감정에 특징적인 신체적 징후들에 대한 모든 느낌들을 떼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구성하는 어떠한 심리적 요소도 우리에게 더는 남겨져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지적인 인식의 냉정하고 중립적인 상태만이 남겨진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17]

결국 제임스에게 있어 순수하게 탈체화된(disembodied) 감정, 즉 모든 신체적 느낌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자극을 유발하는 사실을 지각했을 때 즉각적으로 생기는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 요컨대 제임스는 신체적 변화가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을 즉각 뒤따르는 것이라고 보면서, 감정을 그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 그 자체와 동일시한다.

감정과 신체적 느낌을 동일시함으로써 느낌 이론은 바로 감정의 느껴지는 측면, 즉 감정의 현상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임스가 호소하는 신체적 변화들은 얼굴 표정, 골격 근육의 변화, 목소리 변화, 자율신경계의 변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

[16] Ibid.
[17] Ibid., p. 194.

생리적 변화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들을 내부적으로 지각 혹은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 반응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뒷장에서도 다시 강조하겠지만, 신체를 감정 이론의 중심으로 둔다는 점에서 제임스의 느낌 이론은 비인지주의 이론의 시초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렇게 정립된 느낌 이론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거센 비판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실험심리학에 기초한 근거들은 느낌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징후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점들은 느낌 이론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통해 드러난다. 첫 번째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 감정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척수 손상(spinal cord lesion)을 입은 환자들이 여전히 풍부한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이 반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18] 게다가 이러한 반론은 굳이 과학적 증거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신체적 변화가 미비하거나 동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감정 사례들을 통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제임스의 논증은 공포나 분노와 같은 원초적인 감정의 경우에는 적합해 보일 지 모르나, 후회나 희망 같은 이른바 '지적인'(cerebral) 감정 내지는 고차적 감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포나 분노 같은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때로는 매우 약하거나 미비할 수

[18] 이에 앞서 호만(Hohmann)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제임스의 분리 논증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캐넌(Cannon), 크발리즈(Chwalisz), 코보스(Cobos) 등은 대조군을 추가한 재연 실험을 통해 일부 환자들이 감정의 전 범위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를 꾸준히 얻어냄으로써 제임스와 호만의 결론을 뒤집는 듯한 반례를 제시한 것이다. Jesse Prinz, "Are Emotions Feeling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2, No. 8-10 (2005), p. 13. 반면, 다마지오(Antonio Damasio)와 프린츠(Jesse Prinz) 등 제임스를 계승하는 현대 비인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례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경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다마지오는 신체적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뇌가 마치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이른바 '모의신체고리'(as-if-loop) 기제를 제안하면서 신경생리학 및 뇌신경과학적 연구들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다음 장에서 검토될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이론에 의해 적극 받아들여진다. Prinz, op. cit. (2004), pp. 58-59.

있으므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반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반응이 감정 반응의 전부를 구성한다는 제임스의 주장과 배치된다.

하지만 느낌 이론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반론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반론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스탠리 샤크터(Stanley Schachter)와 제롬 싱어(Jerome Singer)의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 실험'은 신체적 느낌에 인지적 해석이 더해져야만 그것이 비로소 감정 상태라 불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19] 간단한 예로, 내가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심장이 떨리고 혈압이 상승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해보자. 이때 그러한 신체적 변화의 느낌은 나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설레거나 들뜬 감정일 수도 있다. 이것이 맞다면, 신체적 느낌 자체만으로는 감정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감정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 그 자체에 다름 아니라는 느낌 이론의 주장이 맞다면, 각기 다른 감정들은 오로지 그것이 느껴지는 바에 따라 개별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느낌 이론이 요구하는 만큼 신체적 느낌 자체가 과연

[19] 1962년 진행된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피실험자들 모두에게 시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인 것처럼 속인 채로, 실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는다. 그 후 피실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대기실에서 시력 측정을 기다린다. 한쪽 그룹에는 그들을 웃기게 하는 실험 협조자가 투입되고, 다른 쪽 그룹에는 공격적인 질문들의 목록에 대답하도록 한 채, 그 질문들에 대해 화를 내는 척하는 실험 협조자가 투입된다. 대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협조자들과 피실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몰래 관찰되고, 피실험자들은 대기실을 나가면서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관한 응답지를 작성한다. 대조군은 각각 실제 아드레날린 주사가 아닌 플라시보 효과만 나타나는 식염수 주사를 맞은 그룹,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미리 알려주고 주사한 그룹이다. 실험 결과, 우스운 행동을 한 협조자와 만난 그룹의 경우 피실험자들은 대체로 행복하다는 반응을, 성가시는 행동을 한 협조자와 만난 그룹의 경우 피실험자들은 화가 난다는 반응을, 그리고 대조군은 각각 더 약한 정도의 해당 감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사크터와 싱어는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어떤 감정으로 귀속될 것인지는 인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결론 내린다. Ibid., pp. 12-13.

감정 특정적(emotion-specific)일 수 있을까? 예컨대 순전히 신체적 느낌의 수준에서 환희(joy)와 자긍심(pride)은 서로 구별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반론의 논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심각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감정이 분명히 아닌 어떤 신체적 느낌과 감정의 자격을 가지는 신체적 느낌을 느낌 이론이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즉 느낌 이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운동, 추위, 피로 등 비감정적(non-emotional) 상태에 동반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들조차도 모두 감정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아마도 감정의 자격을 가지는 모든 패턴화된 신체적 변화의 느낌들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목록화되어 제시될 수 있다는 희망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느낌 이론은 모든 신체적 변화의 느낌들이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 주체가 그러한 느낌들을 반드시 올바르게 의식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목록이 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왜 그 목록이 감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컨대 식중독에 걸렸을 때 내가 속에서 느끼는 메스꺼운 느낌과, 극도로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 내가 가질 수 있는 혐오감 내지는 역겨움의 느낌은 그 각각이 동반하는 신체적 변화들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그저 메스꺼운 느낌인 데 반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하나의 감정 에피소드인 것인가? 앞 장에서 확립한 바에 따르면, 감정은 현상성은 물론 지향성과 합리성을 갖는 상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위의 예시에서 말해지는 혐오감이나 역겨움의 느낌은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향성을 갖기 때문에 감정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반면 식중독으로 인한 메스꺼움은 그 특성상 우리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감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감정이 단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라면, 감정은 신체의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만 지향적일 것이고,

이는 감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느낌 이론의 근본적인 결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느낌 이론은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개별화(individuation)* 문제를 다루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보인다.

느낌 이론의 이러한 결함을 처음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시킨 것이 바로 초기 인지주의자들이다. 조지 피쳐(George Pitcher)는 느낌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그들은 '화', '두려움'과 같은 말들을 접할 때 "이 말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정확히 무엇이 화이고 두려움인가? 화와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선 렌즈의 조리개를 닫듯이 자신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점점 더 좁혀 나간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느낌이나 감각에 초점을 맞춘 뒤, 그 동안 찾아왔던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성취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대답할 수 없는 난관들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느낌이나 감각이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이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가?[20]

같은 맥락에서 에롤 베드포드(Errol Bedford)는 느낌 이론이 "감정 용어들을 단지 이름들로서 취급하는 오류"[21]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그 용어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느낌 이론에서는 '화', '두려움' 등이 단순히 어떤 특징적인 신체적 느낌에 붙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음으로, 정작 그러한 용어들이 왜 사용되는지, 즉 그 의미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통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기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이 신체적으로

---

[20] George Pitcher, "Emotion," *Mind, New Series,* Vol. 74, No. 295 (1965), p. 346. 최근홍, 「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연구: 허구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과 감정 비인지주의의 통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13에서 재인용.

[21] Ibid.

느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언제나 개념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매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이들은 감정 용어들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 및 제도와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도덕적, 법적, 미적 판단 체계에 구속되는 개념들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우리가 사회 및 환경과 맺는 복잡한 관계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배경 아래에서 이루지는 우리의 행위들을 이해가능한 것(intelligible)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감정이 대상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규범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지향적임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 느낌 이론은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느낌 이론의 이러한 실패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감정 이론은 단지 감정 용어들에 어떤 신체적 느낌들을 대응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용어들이 사용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감정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또는 부당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감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외부세계와 맺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평가적 상태*일 수 있는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베드포드와 피쳐와 같은 철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이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어떤 신체적 느낌이 감정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 판단, 사고 등과 같은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반드시 개입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감정이 신체적 느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인지적 요소들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이론들이 바로 인지주의 진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처럼 느낌 이론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감정 인지주의는 그것이 감정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상정하고 있는 '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강한 인지주의와 온건한 인지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주의 이론들이 감정을 어떤 방식에서 인지적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2. 인지주의 감정 이론

2.1. 인지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 및 장점들

인지주의 일반은 감정의 본질이 신체적 느낌이 아닌 인지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인지주의 이론들 중에서도 감정에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인지를 믿음(belief)이나 판단(judgment), 즉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로 상정하는 이론이 '강한 인지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강한 인지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어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 동물에 대해 무서움을 느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부당함이나 불의를 당했다고 믿지도 않는데 분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인지주의는 감정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감정 주체가 반드시 어떤 주어진 명제적 내용을 믿거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그러한 믿음 내지는 판단의 태도가 감정을 구성한다고 본다.

인지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들로는 로버트 솔로몬(Robert Solomo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등을 꼽을 수 있다. 솔로몬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판단(들)"이다.[22] 유사하게 누스바움은 "나의 슬픔(sadness), 나의 설움(sorrow), 나의 비탄(grief)은 내가 상실을 겪었다는 취지에서 내린 다양한 정도의 판단들"이라고 주장한다.[23]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지주의자들이 감정의 구성요소로 내세우는 믿음이나 판단이 단순히 사실적 믿음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금 내 앞에 개 한 마리가 서 있고, 또 그 개가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적 믿음만으로는 감정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이에 더해, 결정적으로, 그 개가 *나에게 위험이*

---

[22] Robert C. Solomon, "The Passions: The Myth and Nature of Human Emotion," *Anchor Press* (1977), p. 125.

[23] Martha Nussbaum,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2.

*된다*는 가치 판단이 있어야만 두려움이나 공포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지주의자들에게 있어 감정을 구성하는 판단이란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ment)*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주의 이론은 '평가적 판단 이론'(evaluative judgment theory)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된 인지주의는 느낌 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한다. 먼저 인지주의 이론에서 감정이 지향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초기 인지주의자인 엔서니 케니(Anthony Kenny)에 의하면, 감정의 지향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24] 첫 번째는 감정이 *개별적 대상(particular object)*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감정은 개별적 대상과 형식적 대상을 모두 가지는 지향적 상태이며, 전자는 후자 *때문에* 감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픔의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은 각각 누군가와의 이별, 고향을 떠나는 상황, 오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치매에 걸린 부모의 모습 등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것들이 슬픈 경험을 유발하는 한, 모두 슬픔의 개별적 대상들이다. 다른 한편 그러한 모든 슬픔 에피소드들은 '상실'(loss)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내용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슬픔의 형식적 대상이다.[25] 이렇게 본다면, 위와 같이 나열된 모든

---

[24] Anthony Kenny,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chap. 9.

[25] 여기서 'formal'를 '형식적'이라는 용어로 번역할 때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form'의 형용사격인 'formal'은 흔히 '실질'(substance, material) 또는 '내용'(content)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형식' 내지는 '형태', 또는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 논의의 맥락에서 '형식'이 'particular'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대상들 사이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본질(essence), 즉 추상적(abstract)이고 일반적(general)이고 보편적인(universal) 속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는 보다 적절한 의역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본 문에서는 국내 문헌들에서 정착되어 사용되고

개별적 대상들을 '슬픔'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감정 유형으로 묶는 형식적 대상은 다름 아닌 '상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슬픔 에피소드는 그것의 개별적인 대상에 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상실이라는 속성으로 귀속되는 그것의 형식적 대상에 관한 것이다.

케니는 감정이 이와 같이 이중적인 지향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감정이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떤 개별적 대상이 감정을 유발할 때, 그 개별적 대상에 형식적 대상으로서의 특정한 성질 내지는 속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느낌이 아닌) 믿음이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와 마주치는 상황이 나에게 공포 경험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그러한 상황이 위험하다고 (즉 위험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해당 상황이나 대상에 위험이라는 평가적 속성이 (나의 믿음이나 판단에 의해) 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공포를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그럼에도 공포가 일어났다면 그 공포는 적절하거나 이해가능한 것이 아니다.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원을 믿음 또는 판단이라는 인지적 요소로부터 확보함에 따라 인지주의 이론은 이제 감정의 개별화 문제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말하자면 인지주의 이론은 감정의 지향성이 바로 감정 주체의 평가적 믿음이나 판단의 지향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믿음이나 판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감정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설명함으로써 감정의 개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감정 유형들은 그 각각과 관련된 형식적 대상들, 즉 특정한 평가적 속성들(evaluative properties)에 따라 개별화된다. 예컨대 공포와 슬픔은 그것의 개별적 대상이 각각 '위험'과 '상실'이라는 형식적

있는 '형식적 대상'이라는 번역어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particular objec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대상'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개별적 대상'이라는 용어가 보다 직관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과 판단에 따라 후자의 번역어를 사용한다.

대상, 즉 평가적 속성을 가지거나 예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 유형들로 분류되는 것이다.

감정의 형식적 대상으로 이해되는 평가적 속성들을 판단의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주의 이론은 이제 적절한 감정과 적절하지 않은 감정, 정당화된 감정과 정당화되지 않은 감정을 구분시킬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마련하여, 감정의 합리적 규범성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즉 우리가 평가적 속성을 언급함으로써 감정의 옳음 조건과 정당화 조건을 모두 명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실제로는 생존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비통에 빠져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인지주의 이론은 어머니의 비통이 그럴 만한 이유에 근거한 정당화된(justified)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객관적 사태에는 부합하지 않은 옳지 않은(incorrect) 감정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실제로는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유발한다면 그 감정은 옳지 않은 감정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성이 예화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것은 여전히 정당화된 감정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인지주의 이론은, 우리가 흔히 감정의 적합 여부 ('너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했어야 했어. 사실은 별거 없었거든'), 그리고 감정의 정당성('그 일이 겉보기에는 분명 위험해 보였으니까 그때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야')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2.2. 인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와 같이 감정의 지향성과 합리성을 설명함에 있어 우월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인지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지주의가 더이상 유력한 감정 이론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인지주의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첫 번째 대표적인 반론은 평가적 믿음이나 판단은 감정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다시 말해 감정은 인지주의 이론이 요구하는 종류의 명제적 믿음이나 판단 없이 경험될 수 있어 보이므로, 믿음이나 판단은 감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주체의 정서적 경험과 그가 내리는 판단이 서로 상충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저항적 감정'(recalcitrant emotion) 사례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된다. 예컨대 '비행 공포', '거미 공포'의 경우와 같이 주체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공포감을 경험하는 전형적인 '포비아'(phobia) 사례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게다가 굳이 병적이거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정과 판단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을 일상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자신이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감정 주체가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믿음들 - 그 중 하나는 인식되지 않거나 무의식적인 -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지주의를 옹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 주체가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비합리적 상태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필요조건에 관한 반론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영유아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감정이 믿음이나 판단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인지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믿음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일정한 수준의 인지발달 단계에 도달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26]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26] John Deigh, "Cognitivism in the Theory of Emotion." *Ehtics* 104:4 (1994), pp. 824-54.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명제 태도는 결국 명제를 믿거나 단언(assert)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명제를 생각하는 능력에 더불어, 주어진 명제의 참에 동의하거나 가담(commit)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동물이나 영유아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심이 그럴듯하다면, 감정을 믿음이나 판단으로 이해하는 인지주의 이론은 동물과 영유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직관을 포기해야만 하는 난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듯 보인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인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이나 영유아의 반응이 애초에 감정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거나 완전한 의미에서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감정의 1인칭적인 현상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동물이나 영유아가 과연 성인 어른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감정적 경험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27] 하지만 이러한 답변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우선 오늘날 일상에서는 물론, 실증과학의 영역에서도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진화생물학 및 뇌과학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른바 '정서 프로그램'(affect-program)이라 일컬어지는 자동반사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들이 영유아와 성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것들이 '원초적 감정'(primitive emotion) 또는 '기본 감정'(basic emotio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맺어지게 된 것이다. 원초적 감정이란 특정한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패턴화된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신체적 상태이다. 이때 원초적 감정은 인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영유아는 물론,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조상을 둔 여타 동물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선천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27] 다른 일반 성인이 갖는 감정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문화적 산물이 아닌 진화의 산물로 여겨진다.[28]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동물이나 유아의 감정적 반응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진화론적 연속성, 그리고 유아 단계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감정적 표현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단절이 단지 명제 태도의 유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동물과 영유아의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의 변론은 임의적인 처사일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론은 성인 어른의 원초적 감정조차 감정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을 함축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공포'와 같은 원초적 감정과 '죄책감'과 고차적 감정을 (설령 동류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 감정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이해하는 우리의 강한 직관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동물의 감정 반응 사이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증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동물과 영유아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대응은 아닌 것 같다.

---

[28] 일찍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자신의 저서『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에서 인간과 동물의 표정 및 신체적 반응 사이의 유사성이 있다는 관찰에 기반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기본 감정이 있음을 주장했고, 이 가설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심리학자인 에크먼(Paul Ekman)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마침내 실증적 방법을 통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심리학 계열의 감정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 감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예컨대 초기 에크먼은 문화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얼굴 표정을 근거로 6가지 기본 감정(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을 구분 지은 바 있다. 한편 특정한 감정 반응에 전용되는 신경회로와 해부학적 영역이 특정될 수 있다면 바로 그 반응이 기본 감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팽크셉(Jaak Panksepp)의 경우, 다른 연구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기본 감정 목록을 제시한다. 이처럼 현재 기본 감정에 대한 연구 방법과 견해들은 (예컨대 기본 감정과 고차적 감정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과 에크먼의 영향 아래 발전된 기본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존의 감정 논의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만은 분명하다. 기본 감정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들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Prinz, op. cit. (2004), pp. 86-91 참조.

그렇다면 평가적 판단 이론으로 대표되는 인지주의 이론의 요구조건 자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필요조건에 관한 반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말하자면 감정의 구성요소로서의 인지의 종류를 보다 확장시켜 (또는 약화시켜) 이해하는 방법으로, 약한 인지주의 또는 온건한 인지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수정된 인지주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트리샤 그린스판(Patricia Greenspan), 로버트 로버츠(Robert Roberts), 그리고 더 넓게는 드 수사와 같은 온건한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에 동반되는 명제 태도가 믿음이나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생각 품기(entertaining a thought), 상상하기, 해석하기(construing)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감정은 그 지향적 대상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지니거나 예화하고 있다고 믿거나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본다던가,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하거나 해석해 본다던가 하는 식의 약화된 명제 태도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화된 인지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방법의 장점은, 믿음이나 판단과는 달리 그것들이 명제의 참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 *비단정적(non-assertive)* 태도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린스판에 의하면, 개에 대한 두려움은 그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거나 승인할 필요 없이 다만 그것의 위험성에 관한 생각이나 명제를 품는 것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29] 이와 유사하게, 감정이 특정한 명제를 주어진 가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버츠는 개를 위험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단지 위험한 것으로 해석하는 수준의 인지적 태도가 감정을 구성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30]

이와 같이 수정된 온건한 인지주의 이론은 평가적 판단 이론이 다루기 어려운 포비아 사례들까지 수월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처럼

---

[29] Patricia Greenspan, *Emotions and Reason*, New York: Routledge (1988), p. 3.

[30] Robert Roberts, *Emotion: An Essay in Aid of Mor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92.

보인다. 예컨대 비행 공포와 같은 저항적 감정과 관련하여,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제를 적극적으로 믿거나 단언하지 않고서 그러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품거나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공포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체에 어떠한 형태의 비합리성도 부여하지 않고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인지주의는 동물이나 유아의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생각이나 명제를 품는 태도, 또는 상상하기와 같은 비단정적 태도 역시 관련 명제나 생각의 참에 동의하거나 단언하는 것이 아닐 뿐, 여전히 그 명제를 떠올리거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그것에 동반되는 개념들(특히 평가적 속성들과 관련한)에 대한 숙달과 그 개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단순히 큰 이빨을 가진 개가 위험할 수 있다는 명제를 품는 일조차고 '개'라는 개념과 '위험'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즉 온건한 인지주의에서도 감정의 주체는 최소한 명제 내용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소유하고 동원하는 능력, 즉 개념적 능력(conceptual ability)을 여전히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이나 맹수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함 등을 느끼는 동물이나 유아의 경우, 그들이 과연 '위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개념을 동원하여 공포를 느끼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감정을 구성하는 인지의 종류를 확장시켜 이해하더라도, 그 인지가 여전히 개념적 능력을 요구하는 한, 그리하여 감정이 오로지 *개념적인 내용*만을 가질 수 있다는 함축을 계속해서 갖는 한, 온건한 인지주의도 필요조건 반론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요조건에 반론에 더불어, 믿음이나 판단 또는 심지어는 비단정적 사고와 같은 명제 태도는 감정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두 번째 반론 역시 인지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이다. 이 반론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도 (또는 생각을 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나는 뉴욕이 살기 위험한 도시라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뉴욕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누군가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거나 알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두 번째 반론이야말로 인지주의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론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은 감정이 단순히 인지적 상태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정이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that emotion is essentially felt), 즉 감정의 현상성에 대한 호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명제 태도는 감정 경험에 동반되는 현상적 느낌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이 충분조건 반론이 성립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다.

물론, 인지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감정의 현상적 느낌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지주의의 주장은 감정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인지라는 것이지, 그것에 동반하는 현상적 느낌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핵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감정의 현상적 느낌을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종류가 판단이든 사고이든, 인지적 상태가 감정의 필수 구성요소로 있고, 현상적 느낌이 또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그러한 상태에 동반한다는 접근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다. '부가적 이론'(add-on theory)[31]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감정의 구성요소로서의 현상적 느낌이 맡는 역할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32]

첫 번째는 감정의 현상성이 쾌/불쾌(pleasure or displeasure)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감정의 개별화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감정의 느껴지는 바에만 기여한다는 이해 방식이다. 두 번째는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명제 태도 그 자체가 감정 개별화에

[31] 사실 이 명칭은 피터 골디(Peter Goldie)가 인지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뉘앙스로 붙인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인지주의가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붙여진 것이라 생각된다. Peter Goldie,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40 참조.

[32] 인지주의가 현상적 느낌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Deonna & Teroni op. cit. (2012), pp. 56-58를 참조하였음.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현상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이 각각 떠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볼 때, 우리는 인지를 감정의 핵심적 요소로 두는 인지주의 이론이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첫 번째 방식을 보자. 이는 감정의 두 구성요건, 즉 한편으로는 인지적 요소, 다른 한편으로는 쾌나 불쾌의 느낌에 각각 구분되는 역할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판단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감정 유형을 개별화하고, 쾌/불쾌의 느낌은 감정의 현상성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분배는 인지주의의 이론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인지주의의 강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지주의는 믿음이나 판단이라는 고차적인 인지 능력에 개별화 기능을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특히 고차적 감정 유형들을 개별화하는 데 유리한 장점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고차적 감정으로 여겨지는 연민(pity)은 원초적 감정인 슬픔(sadness)과 유사한 불쾌의 느낌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의분(indignation)은 화(anger)와 유사한 불쾌의 느낌을 보인다. 이때 그 각각의 쌍은 그러한 불쾌의 느낌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의) 인지적 해석을 통해 손쉽게 개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감정의 현상적 느낌을 단순히 쾌와 불쾌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그만큼 감정 경험의 현상적 특성에 대한 설명력을 희생시켜야 하는 결함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방식들, 말하자면 감정들 간에 경험되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로 관련이 있는 원초적-고차적 감정 쌍(의분-화)을 개별화하는 데 있어 강점을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이 서로 동떨어진 감정 유형들을 개별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분노'와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내가 경험하는 '슬픔'이 각각 그 느낌에 대한 판단 또는 인지적 해석에 있어서만 서로 다를 뿐, 동일한 종류의 불쾌라는 현상성 (그 정도나 강도만 다른)을 지녔다는 설명은 감정의 현상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와 달리 판단과 같은 명제 태도 그 자체가 충분히 풍부한 현상성을 지녔다는 두 번째 이해 방식은 어떠한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믿음이나 판단이 현상적 느낌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데다가, 그 현상성이 믿음이나 판단의 내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즉 만약 감정의 현상적 느낌 그 자체가 다양한 감정들을 개별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왜 굳이 인지를 감정의 핵심 구성요소로 상정해야만 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인지주의 이론이 느낌 이론에 대해 갖는 우월성이 다양한 감정 유형들을 개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면, 인지와는 독립적으로 정확히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현상성을 도입하는 것은 인지적 요소를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 뿐 아니라, 인지가 감정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인지주의의 핵심 주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도리어 시사하는 것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믿음이나 판단 또는 사고와 같은 인지는 감정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인지주의는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을 설명하는 데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인지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감정을 개념적 능력이 요구되는 명제 태도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다. 즉 감정의 내용을 오로지 명제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는 한, 인지주의는 불완전한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인지주의는 감정의 경험적 측면, 즉 현상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만족스럽지 못한 이론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감정의 본질적 요소를 그와 같은 인지로 설정하는 한, 인지주의는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설명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인지주의가 더이상 감정에 관한 유력한 이론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주의가 감정의 문제에 여전히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개별적 대상뿐만 아니라 형식적 대상을 가지는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의 지향적 관계를 이루며, 그 형식적 대상이 다름 아닌 평가적 속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이때 평가적 속성들은 단순히 감정이 세계의 가치와 연결된 일종의 평가임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감정 유형들이 어떻게 개별화되며, 또 어떻게 합리적 기준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인지주의의 이러한 통찰을 계속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감정을 평가적 속성들과 관계하는 세계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이론화하기 위해 믿음이나 판단, 또는 사고와 같은 인지적 상태가 아닌 다른 어떤 유형의 심적 상태, 말하자면 지향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심적 상태를 모델로 하는 것이 인지주의가 보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그것이 감정에 관한 논의에 유의미하게 가져온 통찰을 이어가는 방법일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심적 상태를 모델로 삼고 있는 감정 이론인 지각 이론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I. 감정 비인지주의: 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앞에서 우리는 감정 인지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왜 감정에 관한 대안적 이론이 필요한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적 이론이 감정의 현상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지각 이론'(Perceptual Theory of Emotion)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각 이론은 감정을 믿음이나 판단 또는 사고와 같은 인지적 상태가 아닌 시각이나 촉각과 같은 *지각적 상태*[33]로 규정하는 이론이다. 지각 이론은 그 이론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감정이 가치에 대한 *직접적 지각(direct perception)*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이 신체를 매개로 한 *간접적 지각(indirect*

[33] 지각을 인지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지각 이론이 반드시 비인지주의 이론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테면 드 수사는 지각 이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론을 인지주의 이론의 한 종류로 내세운다. 본고에서도 일부 지각 이론을 비인지주의 이론으로 명시화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하지만 지각 경험이 대체로 인지적으로 침투되지 않는(cognitively impenetrable)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최근 심리학 및 인지신경과학의 연구들은, 지각이 적어도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전형적인 인지적 상태들과는 다른 차원의 또는 독립적인 경로를 거치는 별도의 인식체계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싣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결론의 사례로는 Anthanassios Raftopoulos,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atural science inform philosophy?*, MIT Press (2009) 참조.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지각 이론은 큰 무리 없이 비인지주의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게다가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경계를 구분 짓는 합의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각 이론을 인지주의 이론으로 볼 지 말지는 단순 용어상의 문제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자가 보기에 우리의 맥락에서 당장 결정되어야 할 정도로 크게 유의미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인지주의의와 비인지주의 사이의 경계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논의로는 오성,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이론의 경계 짓기: Nussbaum과 de Sousa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2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참조.

*perception)*이라는 입장이다. 전자를 '직접 지각론'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간접 지각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34] 특히 프린츠의 지각론을 중심으로 발전된 후자의 경우, 제임스의 느낌 이론을 계승하면서 기존의 인지주의 이론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노선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비인지주의 진영을 보다 확고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35]

여기서 필자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지각 모델이 결국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이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먼저 직접 지각론을 살펴본 뒤,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

[34] 지각 이론의 이러한 구분 방식은 디오나와 테로니 (2012)의 이해를 따른 것이다.

[35] 한편 '인지'라는 용어를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경우, '지각' 역시 세계의 속성들을 인식하는 인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조차 인지주의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유진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의 수정과 확장」, 『철학연구』, 제48집 (2013), pp. 197-224.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각이 인식 작용의 일종이라는 단지 그 이유에서 간접 지각론을 인지주의로 포섭시키려는 방향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설령 우리가 그러한 포괄적인 이해 방식을 따라 간접 지각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각 이론을 인지주의로 분류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감정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해나 통찰 또는 시사점을 제공하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현대의 감정 이론들 중 인지주의로 분류되지 않을 이론이 애초에 있는지도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맥락에서 필자가 실질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인지와 지각이 서로 독립적인 인식 체계 하에 각각 상이한 종류의 내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전자의 경우 명제적·개념적 내용을, 그리고 후자의 경우 비명제적·비개념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필자는 인지와 지각의 일상적인 구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자는 '인지주의-비인지주의'라는 현재 영미 감정론이 선점하고 있는 구분법에서, 지각 이론이 일반적으로 비인지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본다. 특히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의 경우, 제임스를 필두로 한 비인지주의 전통이 감정의 신체성을 부각시켜 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프린츠를 현대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비인지주의 이론의 또 다른 예로는 비슷한 시기에 프린츠와 유사한 이론을 제시한 제니퍼 로빈슨(Jenefer Robins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Jenefer Robinson, *Deeper Than Reason: Emotion and its Role in Literature, Music, and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2005), pp. 57-99

1. 직접 지각론

1.1. 지각 모델을 위한 논변

판단이나 사고를 모델로 하는 인지주의 이론들은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느낌 이론에 비해 배타적 우월성을 갖지만, 감정의 현상성을 함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인지주의 이론의 이러한 실패는, 감정을 명제 태도가 아닌, 흔히 비명제적 태도의 표본으로 이해되는 지각 경험의 모델 위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에 동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직접) 지각론이다. 드 수사(Ronald De Sousa)[36], 크리스틴 타폴렛(Christine Tappolet)[37], 사빈 도링(Sabine Döring)[38]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지각 이론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세계 속 가치에 대한 지각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정은 평가적 속성들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이나 사고가 아니라, 그것들을 비인지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이라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발 밑으로 지나가는 뱀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위험'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 차트를 보거나 좀비를 상상하면서 느끼는 공포의 경우도 모두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이 예화하는 위험을 지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지각 이론은 마치 우리가 시각이나 촉각 행위를 통해 물리적 속성을 지각하는 것처럼 감정을 통해 평가적 속성을 지각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물리적 속성이 아닌 평가적 속성에 대해 '지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이다. 지각 이론을

---

[36] Ronald De Sousa, *The Rationality of Emotion*, MIT Press (1987).

[37] Christine Tappolet, *Emotions, Values, and Agen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6).

[38] Sabine Doring, "Seeing What to Do: Affective Perception and Rational Motivation", *Dialectica* 61:3 (2007).

비판하는 대목에서 상세히 드러나겠지만, 이것은 결국 지각 이론에 제기되는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 반면, 지각 이론가들은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지각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그 근거를 감정과 지각 일반 사이의 유사성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감정과 지각 일반 사이에 나열될 수 있는 유사점들이 무엇인지에 천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인 사실들이 감정을 이론화하는 데 지각을 믿음이나 판단보다 더 매력적이고 적합한 모델로 보이게끔 하는 것일까? 지각론자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들은 모두 지각이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상태들로 환원되어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들과 관련한다.[39]

첫째, 지각은 단순히 믿음이나 판단에 호소함을 통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어떤 현상적 느낌을 *그 자체로* 갖는다. 예컨대 내 앞에 놓인 빨간색 사물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은 내 앞에 빨간색 사물이 있다고 하는 차원의 판단이 갖지 않는 어떤 시각적 느낌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후자의 경우 나는 그 사물의 '빨간색임'(redness)을 반드시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예컨대 다른 누군가의 증언만을 듣고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내가 그 빨간색 사물을 '지각'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반드시 경험했어야만 한다는 요구조건이 따른다.

둘째, 판단이나 사고와는 다르게 지각은 그것의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 개념적 능력을 상정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빨간 사과를 지각하는 데 '빨강'의 개념이나 '사과'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단순한 동물이나 영유아가 특정한 색이나 물체를 지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지각

[39] 지각 일반과 감정 간의 유사점들과 뒤에서 다루어질 차이점들에 관한 내용들은 Mikko Salmela, "Can Emotion be Modelled on Perception?", *Dialectica* 65:1 (2011), pp.1-29;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66-69; Tappolet, op. cit. (2016), p. 19-24에서의 설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경험의 내용을 비개념적(non-conceptual)이라 주장해 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40]

셋째, 이러한 비개념적 특성 때문에 지각은 그에 상응하는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보다 세밀한(fine-grained) 내용적 구분이 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지각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단기 기억에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개념화할 수 없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지각이 개념들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세밀한 세부들까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1] 예컨대 우리는 한 특정한 색을 지각하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색 개념의 목록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색 스펙트럼 속의 무수한 명암들(shades)의 차이를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0]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맥도웰(McDowell)과 브루어(Brewer)로 대표되는 개념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각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각된 정보를 분류하거나 범주화하는 등의 개념적 능력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내용은 개념적이다. 반면, 라프토폴루스(Raftopolous)와 밀러(Müller)와 같은 현대의 비개념주의자들은 개념적 능력을 포함한 높은 차원의 인지적 능력들이 침투되지 않는(cognitively unpenetrated) 하위 단계가 지각 경험의 한 층위를 구성한다는 식의 논증을 통해 지각 내용이 본질적으로 비개념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현대의 개념주의 대 비개념주의 논쟁은 결국 지각적 '경험'이라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지각 자료의 비인지적 수용으로서의 초기 내지는 하위 단계를 지각 경험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념주의가 그러한 하위 단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러한 하위 단계의 존재는 감정에 관한 지각 이론에 동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맥락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입장을 취하든 지각이 적어도 믿음이나 사고와 같이 명제적 형태를 띠는 내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각이 명제적 내용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지각 이론을 전개한다면, 지각 이론은 이제 인지주의 이론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개념주의 비개념주의 논쟁에 관한 자세한 논의로는 김태경, 「지각 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 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논문 참조.

[41] 김태경은 같은 논문에서 지각 내용의 비개념성을 함축하는 세밀성에 관한 자세한 주장으로는 에반스(Evans)와 켈리(Kelly)의 '세밀성 논증'(fine-grainedness argument) 및 드레츠키(Dretske)의 '풍부함 논증'(richness argument)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Ibid. pp. 2-3.

지각론자들은 지각 일반과 관련한 위의 세 가지 사실들이 감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평가적 믿음이나 판단이 수반하지 않는 어떤 특유의 현상적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예컨대 무언가를 빨간색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듯이, 공포의 느낌 같은 것 또한 분명히 있는데, 이는 내가 공포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이 공포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내 속에서 내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동물이나 영유아가 일부 원초적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감정 또한 개념적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험되며 따라서 감정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 지각론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게다가 이들에 따르면, 감정이 우리의 언어적·개념적 사고에 의해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매우 미묘한 현상이라는 점, 예컨대 똑같이 공포감이라 하더라도 느껴지는 바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공포감이 있다는 점은 지각 경험의 내용을 특징짓는 세밀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즉, 이러한 이유에서 지각론자들은 인지보다는 지각이 감정에 더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각론자들이 호소하는 지각 일반과 감정의 공통된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만 더 언급해 보자면, 지각과 감정 모두 수동적인 반응처럼 보이며 (단풍잎을 붉은색으로 보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개를 무서워하는 것을 조절하거나 선택할 수 없어 보인다), 그 작용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즉, 우리가 지각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의지로 바꾸기란 쉽지 않다). 또한, 두 경험 모두 외부 대상들에 의해 야기되며, 그 적합 여부에 따라 옳지 않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파란색이 아닌 대상이 파란색으로 보인다면 부적절한 것이 듯이, 위험하지 않은 대상이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그 감정은 부적절한 것이다).

지각 이론자들은 지각과 감정 간의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감정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닌 지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있어 두려움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은 각각 '위험'과 '상실'이 예화되고 있음을 믿거나 판단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속성들을 그저 지각하는 상태이며, 이는 특정한 색이나 형상, 예컨대 빨강이나 원을 지각하는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위의 주장이 맞다면, 지각 이론은 인지주의의 강점은 살리면서도 그것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해결할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각 이론의 이론적 장점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지각이론을 따를 때 감정은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명제 태도와 연루되지 않고서도 여전히 '마음에서-세계로의 방향적합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감정의 지향적 대상이 외부세계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로, 감정이 세계 속 가치들을 우리에게 드러냄에 있어 중요한 지향적 역할을 한다는 인지주의의 직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지각 이론은 개별 감정들을 그것들이 각각 드러내는 가치의 구체적 내용, 즉 그 평가적 속성의 유형에 따라 개별화할 수 있으며,[42] 이를 위해 감정의 현상성과 관련한 우리의 직관, 말하자면 현상적 느낌이 우리의 감정 경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직관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지각 이론은, 지각의 지향성과 현상성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평가적 속성들이 현상적 느낌을 통해, 즉 경험적으로 두드러지는 방식으로(experientially salient way)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각 이론은 감정이 '느껴지는' 무엇이라는 우리의 직관을 유지하는 동시에 감정의 개별화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인지주의 이론에 비해 갖는 분명한 장점으로 내세워진다.

---

[42] 여기까지는 인지주의 이론이 감정을 개별화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 인지주의 이론은 느낌 이론이 봉착했던 개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을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명제 태도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현상적 느낌은 그저 그러한 명제 태도에 '부가'되는(add-on)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 즉 사실상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지각 이론은 인지주의 이론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동물이나 영유아의 원초적 감정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저항적 감정 사례들로 대표되는 비합리적 감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우선 지각 경험이 언어적·개념적 능력, 또는 적어도 명제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러한 능력을 결여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미비한) 동물이나 영유아의 원초적인 감정적 반응이 감정으로서의 명실상부한(full-fledged)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근거지워 준다. 이를테면 인지적으로 덜 발달된 존재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위험이라는 개념의 동원 없이 위험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상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각과 판단이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지향적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 의해 입력되는 지각 정보들이 세계의 속성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바로 '뮐러-라이어 착시'(Müller-Lyer Illusion)[43]와 같은 시각적 착시 현상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을 모델로 하는 지각 이론은 포비아와 같은 저항적 감정들을 무작정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종의 '감정적 착시 현상'과도 같은 경우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뮐러-라이어 착시에서 두 선이 동일한 길이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른 길이로 지각하는 현상은 원리적으로 모순이 아닌데, 왜냐하면 믿음과 지각은 애초에 가기 다른 차원의 인식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비행공포증을 경험하는 것 (즉 위험을 지각하는 것)은 지각 이론에서 모순적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44] 게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43] 독일의 심리학자 프란츠 뮐러-라이어(Franz Müller-Lyer)가 고안한 것으로, 실제로는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이 끝에 추가된 화살표의 방향 때문에 다른 길이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컫는다.

[44] 도링은 이러한 경우들을 "모순 없는 갈등"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양선이,「감정진리와 감정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고찰」,『철학연구』49,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pp. 138-139 참고.

아니더라도, 내려진 판단과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일상적 감정 경험에 대해서도 지각 이론은 인지주의 이론과는 달리 일관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각이론은 감정과 평가적 판단의 관계를 지각과 지각적 판단 사이에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대칭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45] 일반적으로 지각은 지각적 판단을 야기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각 경험은 그에 상응하는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을 직접적이고 비추론적으로(non-inferential)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내 앞에 빨간색 원이 있다는 판단은 빨간색 원을 보는 나의 지각 경험으로부터 곧바로 형성되며, 어떤 다른 정당화 이유나 판단이 필요 없이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병렬적으로, 지각 이론은 감정이 평가적 속성에 대한 지각 경험이기 때문에 감정이 평가적 판단을 야기하고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각 이론은 감정의 인식론적 역할에 관한 직관적이고 단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46]

1.2. 지각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으로 살펴본 지각 이론의 강점들, 그리고 지각 이론이 호소하는 지각 일반과 감정 간의 유사점들은 모두 결국 지각이 지향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일체적으로 갖는 심적 상태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감정이 현상적 느낌을 지닌 지향적 상태인 한, 지각은

---

[45]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57.

[46] 여기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감정이, 그것이 가치에 관한 지각 경험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응하는 평가적 판단을 위한 이유(reason)가 될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내가 어떤 농담을 듣고 재미를 느낀다면(amused), 그것은 내가 그 농담이 웃긴 것(funny)이라고 믿거나 판단할 파기가능한(defeasible) 이유가 된다. 즉 다시 말해, 그렇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한, 나의 그러한 믿음은 내가 느낀 재미를 근거로 정당화된다.

매력적인 모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감정과 지각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들 또한 존재한다면, 우리가 지각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어야 할 논거는 그만큼 약화될 수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바로 그러한 차이들에 주목하면서 지각 이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 뒤, 지각 이론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목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감정을 문자 그대로 지각과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각이 감정과 달리 반드시 특정한 감각 기관들(눈, 코, 혀, 귀, 피부)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상이라는 사실과 관련한다. 지각은 감각 기관들의 자극을 거쳐 일어나는 감각 양상들(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에 기반하여 외부 대상에 관한 표상을 형성한다. 반면 감정의 경우에는 눈이나 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감정 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반드시 오감과 결합된 형태로 주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모양, 색상, 압력, 온도 등과 달리, 감정이 파악한다고 주장되는 위험, 상실, 모욕, 경탄할 만함 등과 같은 평가적 속성들은 특정한 감각 기관이나 심지어는 신체 부위를 거쳐 파악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감각 양상들에 특정하게 국한되어 경험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지각 경험의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것이다. 감정과 달리 지각은 흔히 '투명한' 경험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때 경험이 투명하다 함은, 경험의 주체가 그 경험 속에서 의식하는 것이 다름 아닌 대상 그 자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커피 잔을 보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어느 순간 커피 잔을 보는 자신의 경험 그 자체로 주의를 전환한 뒤, 스스로 그 경험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지각된 대상이 예화하는 속성들 – 그것의 색상, 재질, 모양 등 – 이외 다른 그 어떤 요소도 언급할 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요소들은 지각 *경험의* 속성들이 아닌, 지각된 대상 그 자체의 속성들로서 우리에게 곧바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지각 경험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대상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지각은 그러한 의미에서 투명한

경험이다.[47] 반면, 감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투명성이 적용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개에 대한 공포의 현상적 느낌은 개의 특성들(예컨대 날카로운 이빨, 으르렁 대는 행동 등) 그 자체로서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개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한 뒤 남김 없이 기술해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개의 특성들만을 언급하기보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느낌, 식은땀이 나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 등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들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의 특성들 및 신체적 느낌들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속성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은 지각과 같이 그 대상과 경험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그런 투명한 경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정은 그 유인가(valence)에 따라 대체로 긍정적이거나(기쁨, 반가움, 뿌듯함) 부정적인 것으로(두려움, 슬픔, 수치심) 경험되고 또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각은 그 자체로는 유인가를 가지지 않은 중립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 세 번째 차이와 바로 앞의 두 번째 차이는 결국 감정의 현상성이 지각의 그것에 비해 더욱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두 가지에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원리가 개입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넷째, 지각은 우리의 동기적 상태(motivational states)들과

---

[47] 많은 철학자들이 지각 경험에 관한 투명성 논제를 받아들인다. 윤보석,「경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철학사상』3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p. 384. 하지만 이 역시 논쟁의 여지는 있다. 예컨대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성이 내재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내재주의자(internalist)들은 투명성 논제를 적극 부정하고 있다. 즉, 그들은 내재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나 속성들이 개입된 지각 경험들을 반례로 내세우면서 (예컨대 흐릿한blurry 지각), 지각 경험이 투명한 경험이 아님을 주장한다. 한편, 그러한 지각 경험 사례들이 사실상 지각 자체의 현상성이 아니라 인지적 현상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논제에 대한 반론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는 Laura Gow, "Everything is Clear: All Perceptual Experiences are Transparent",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7:2 (2019), pp. 412-425.

비교적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믿음, 욕구, 관심, 성격 및 기질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동기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유발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사소한 일에 대해 누군가가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 해당 감정은 그의 낙천적인 성격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다섯째, 감정과는 달리 지각의 내용은 지각된 대상들과 속성들에 의해서만 야기된다는 인과적 제약을 받는다. 달리 말하자면, 지각 경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인과적 책임은 반드시 지각된 대상들과 속성들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과와 그것의 '빨간색임'(redness)이라는 속성이 나의 시각 경험을 야기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나는 사과의 속성으로서의 '빨간색임'을 지각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적 제약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내가 환각(hallucination)을 경험하는 경우, 나는 그것을 다만 지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only seems to)* 것에 지나지 않는다.[48] 하지만 감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내가 본 적도 없고 실재하지도 않는 귀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공포감 느낀다면 나는 공포를 단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지적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감정이 곧 지각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literally)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지각 이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차이들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론자들은 감정과 지각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감정이 *유비적인 의미*에서 지각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들은 지각 이론이 주는 장점들을 고려한다면 감수할 만한 것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이 '지각과 같은'(perception-like) 상태 또는 '준-지각'(quasi-perceptio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타폴렛과

---

[48] John Searle,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1983), p. 38.

도링의 주장[49]도 바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지각 사이의 유비적 관계조차 위협하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둘 사이에 있다는 점이 최근 지각 이론에 대한 비판들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50] 이는 지향성과 관련한 차이로서, 두 현상이 모두 세계를 향한 지향적 상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다른 지향적 대상과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감정이 '무엇에 관한 것'(aboutness)일 수 있는지의 범위가 지각의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은 지각 이론에 큰 문제가 된다. 우선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해보자. 지각의 경우,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나는 특정한 밝기 조건 속에서 그리고 시야각을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과의 특정한 공간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 한, 나는 그 대상을 지각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내 앞에 있는 뱀을 지각하면서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뱀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일단은 뱀에 대한 나의 지각의 경우와 동일한 제약조건들에 구속받는다. 그 이유는 이때 나의 혐오감은 뱀에 대한 나의 지각 경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이 반드시 지각에 입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순히 내가 지각하는 대상이나 상황뿐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상상하는, 예측하는, 믿는, 또는 그저 떠올려보는 대상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정은 지각과는 달리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대상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이념에 희망감을 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각의 경우와는 다르게 감정의 가능한 지향적 대상은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는 본 장의 앞부분에서

---

[49] Tappolet, op. cit. (2012), p. 207, Döring, op. cit. (2007), p. 376.

[50] Salmela, op. cit. (2011); Deonna & Teroni, op. cit. (2012), chap. 6; Michael Brady, *Emotional Ins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2013), chap. 3;

처음 언급했던 의문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들과 관련하는 감정을 '지각적 경험'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다시 말해 감정은 적절한 의미에서 평가적 속성들을 '지각'한다고 말해질 수 있을까? 물론 지각을 유비로서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이 지각, 기억, 믿음, 추정, 상상 등을 통해 다양하게 주어지는 지향적 대상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극복된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이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면, 지각론자들에게 있어 감정 주체가 지각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정신 활동을 통해 주어지는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 그 자체들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예화하는 평가적 속성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억 혹은 상상 속의 무서운 존재, 주식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 또는 심지어는 사회의 폭력성 같은 추상적 개념은 모두 결국 위험이라는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 것이며, 감정 주체는 그것들로부터 위험이라는 바로 그 속성을 지각함으로써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과 지각 사이의 완전한 일치가 아닌 일부 주요한 유사성만을 주장하는 지각론자들은 위와 같은 물음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필자는 감정이 그 시제나 종류에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만큼 다양한 대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지각 모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51]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대상을 가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제 감정과 지각 간의 유비적 관계조차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실질적인 논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즉, 감정과 지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두 현상이 각각의

[51] 이를 테면, 타폴렛은 최근 저서에서 감각지각(sensory perception)을 지각 경험의 원형적 모델로 삼지 않는다면 감정이 지각 경험이라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Tappolet, op. cit. (2017), p. 207. 하지만 이로써 그녀가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패러다임 사례"로서의 감각지각을 포기하게 되는 약화된 입장을 보인다는 점은 지각 모델이 받고 있는 이론적 압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에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먼저 지각이 물리적 속성들에 자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내용을 가지며, 그 속성들을 위한 그 어떤 선행적 접근이나 파악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독립적(independent) 또는 독자적(sui generis)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말하자면,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등의 지각 행위는 그것이 파악하는 속성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경우 그 어떤 다른 심적 상태나 능력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파란 물체의 '파랑 속성'(blueness)을 보거나 누군가의 목소리의 음높이(pitch)를 듣기 위해서는 그와 관계되는 그 어떤 사전적 접근도 확보되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감정의 경우는 다르다. 감정은 오히려 지각을 비롯한 여타 다른 심적 상태들 – 믿음, 기억, 상상 등 – 에 결합(latch onto)하여 그 내용을 넘겨(inherit)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은 그것의 이른바 '*인식적 기저들*'*(cognitive bases)*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52] 예컨대 내가 좀비를 무서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좀비에 대한 어떤 표상이 나의 지각이나 믿음, 기억 또는 상상 등으로부터 먼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이 평가적 속성들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파악하는 지각적 상태라는 관점, 즉 지각 이론의 옹호자들이 취할 법한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설령 좀비의 위험성이 나의 공포를 통해 '지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비라는 대상 자체는 다른 접근 방법(기억, 상상, 믿음, 또는 지각 등)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는 먼저 좀비를 보거나 듣거나 떠올리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한 어떤 믿음을 가진 뒤에서야 비로소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이 그것의 인식적 기저로서 기능하는 여타 다른 심적 상태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각 이론이 감정에 부여하는 인식론적 역할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일으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각이론은 지각 경험이 지각적 판단의 이유가 되는 것과

---

[52] Ralph Wedgewood, "Sensing Valu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3:1 (2001), p. 223;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69.

유사하게 감정 경험이 평가적 판단의 이유가 된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지각이 물리적 속성들에 대한 독자적인 이른바 *초기 접근양식(primary mode of access)*인 반면 감정은 그것의 인식적 기저들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그와 같이 깔끔한 대칭적 유비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각의 경우, 그것이 속성들에 대한 초기 접근양식인 한, 우리는 지각에 대해 이른바 '왜 물음'(why-question)을 묻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왜 토마토를 빨간색으로 보았는지를 묻는 것은 이상하다. 반면, 감정의 경우, 누군가에게 왜 화가 났는지를 묻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당 감정을 야기한 인식적 기저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컨대 철수는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거나 전해 들었거나, 또는 과거에 그랬던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이 이유에서 마이클 브래디(Michael Brady)는 지각 이론의 구상과는 달리, 감정은 무언가를 위한 이유가 되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유를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53]

이에 따라 직접 지각 이론은 감정의 동기적(motivational) 측면, 즉 감정이 행동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 또한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다. 물론 지각론자들은 평가적 속성에 대한 지각적 경험으로서의 감정이 특정한 행동 반응을 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강변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위험에 대한 지각은 그것을 예화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피할 정당화 이유(justificatory reason)가 되며, 그 결과 도망치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화 이유(motivating reason)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각론자들은 감정이 그 자체로 동기적 상태로서 행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보다 강한 주장은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행동을 위한 이유를 제공받는 것은 아직 행동을 하려는 상태(being motivated to act)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정과 지각 사이에 이러한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53] 감정과 관련한 지각이론의 인식론적 구상에 관한 비판 및 대안으로는 Brady, op. cit. (2013), 논의 참고.

고려한다면, 우리는 지각 이론이 다양한 감정 사례들 중 지각을 그 인식적 기저로 하는 일부 사례에만 천착하여 고안된 모델이고, 바로 이 점이 문제의 근원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인지주의 이론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현되는 감정의 지향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고차적 감정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던 만큼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과 같은 일부 저차적 또는 비개념적으로 보이는 감정 사례들에 대한 설명력을 희생시켜야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각 이론은 그러한 저차적 감정 사례들을 적합하게 설명해낼 수는 있지만, 감정의 지향적 대상이 지각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테면 개념적 사고 또는 언어가 개입되는 믿음이나 상상의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직접 지각론은 감정과 지각의 성공적인 유비를 통해 감정을 해명하고자 하는 방향을 추구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차이들은 그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특히, 직접 지각론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주장이든 유비적 주장이든, 감정이 다양한 인지적 기저들에 대해 갖는 의존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 즉, 지각 이론은 감정이 광범위한 종류의 대상들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지향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지 그 대상이 (인식적 기저로서의) 지각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부 사례들에 대해서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듯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지각 이론은 인지주의 이론과는 반대로 비개념적 내용만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간접 지각론: 프린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지각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지각의 그것에 비추어 설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들을 안고 있음을 알 게 되었다. 특히, 현재까지 다루어진 형태의 직접 지각모델은 감정의 지향성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전히 지각을 모델로 하면서 앞선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만족스럽게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론이 간접 지각이론이다. 앞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 이론은 감정을 신체적 변화를 매개로 한, 가치에 대한 *간접적 지각(indirect perception of value)*라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제시 프린츠(Jesse Prinz)[54]가 발전시킨 이러한 형태의 지각론은 제임스 이후의 시도들이 대체로 간과해왔던 신체적 요소를 다시금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제임스식 비인지주의를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를 중심으로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인식론적 합리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프린츠의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이 이론은 현대 감정 이론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손꼽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프린츠가 어떻게 그러한 설명을 시도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감정이론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1.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 이론

직접 지각모델이 감정의 지향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간접 지각모델은 이를 어떻게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간접 지각모델은 어떻게 감정과 다양한 인식적 기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감정이 평가적 속성들을 적절한 의미에서 '지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프린츠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임스의 느낌 이론에서 찾는다. 앞 장에서 검토해 보았듯, 제임스의 주장은 감정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 내지는 지각이라는 것이었다. 프린츠는 이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신체적 변화 자체가 어떻게 평가적 국면을 갖게 되는지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명하는 접근을 취한다. 다시 말해 프린츠는 제임스에 의해 전면에 드러나게 된 직관, 즉 신체가 감정에 필수적으로 개입된다는 직관을,

[54] Prinz, op. cit. (2004).

감정이 평가적 속성들과 지향적으로 관계한다는 제임스 이후의 확립된 이해와 조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프린츠의 감정 이론은 느낌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느낌 이론에 대한 비판점인 감정의 지향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느낌 이론과 감정의 지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조화가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앞서, 우리는 프린츠가 어떤 이유에서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프린츠는 자신이 제임스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한, 감정이 곧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 내지는 느낌과 동일시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느낌 이론의 기본 전제, 말하자면 신체적 변화가 감정에 선행하며 사실상 감정을 야기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프린츠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신체적 변화의 느낌을 언급하는 것이 감정의 현상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일인칭적 시점에서 남김없이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프린츠는 제임스의 '분리 논증'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프린츠는 신체적 변화만이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감정의 현상적 느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는 제임스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것이 최근 경험과학의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다마지오에 따르면, 유기체의 현 상태를 알려주는 인체의 내부 지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뇌 영역 – 대상엽(cingulate cortex)과 시상하부(hypothalamus), 그리고 일부 체성감각 피질(somatosensory cortices) 및 뇌간(brain stem) 부위들과 같은 – 의 상당한 활성화가 특정 감정의 경험을 보고하는 피실험자들의 뇌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고 한다.[55]

두 번째는 감정과 인지가 서로 다른 신경해부학적 구조와

[55] Antonio Damasio et al., "Subcortical and cortical brain activity during the feeling of self-generated emotions", *Nature Neuroscience*, 3 (2000), pp. 1049-1056. Ibid., p. 58에서 재인용.

연루된다는 견해와 관련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프린츠는 신경과학자인 조지프 르두(Joseph LeDoux)의 연구를 그 증거로 내세운다. 르두는 뱀과 유사한 물체에 대한 공포 반응이 전적으로 뇌의 하부피질 영역(subcortical regions)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56] 피질하 영역이 개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르두의 증거는 그렇다면 공포와 같은 일부 원초적 감정들이 인지적 상태의 매개 없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르두의 증거는 공포 상태가 하부피질 영역, 구체적으로는 편도체(amygdala)에 의해 조정되는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이라는 주장과 일관적이므로, 제임스의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프린츠의 설명이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이 직접적인 물리적 유도(direct physical induction)를 통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한 약물 투여 혹은 알코올 섭취는 우리의 감정적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특정 감정의 표현과 연관되는 얼굴 표정을 자발적으로 짓는 행위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제기된다. 즉, 프린츠는 이러한 사실들을 신체적 변화가 감정에 선행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프린츠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감정에 선행하며 감정은 사실상 그러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라는 제임스의 기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프린츠의 지각론은 감정이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이라는 주장을 넘어서 그것이 가치를

---

[56] 르두의 연구에 따르면, 뇌 시상은(thalamus) 주어진 자극이 뱀일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일차시각피질(visual primary cortex)뿐만 아니라 편도체(amygdala)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도체는 공포 반응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신체적 변화들을 홀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질하 구조이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공포와 관련한 전형적인 신체적 반응이 유발되면서 즉각적인 철회행동(withdrawal behaviour)이 뒤따르는데, 이 모두가 시상으로부터의 신호가 일차시각피질로 전달되는 직전 또는 순간에 발생한다. 우리가 종종 어떤 뱀을 연상시키는 물체가 진짜 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Ibid., p. 38.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감정이 단순히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즉 평가적 속성들과 관계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 주장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정이 '체화된 평가'(embodied appraisal)라는 프린츠의 표현에 담겨 있다.[57] 여기서 감정이 '체화되었다' 함은 그것이 바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평가'라고 함은 그것이 *평가적 속성들을 그 지향적 내용*으로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신체적 변화들이 감정 주체의 심적 상태와 외부 세계에서 예화되는 평가적 속성들을 매개한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이 비단 직접 지각론뿐만 아니라 인지주의 이론들과도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이론들은 감정 주체의 심적 상태가 (그것이 판단이 되었든 지각이 되었든) 평가적 속성들과 직접 관계한다고 본 반면, 프린츠는 신체적 변화라고 하는 제3의 요소가 결정적으로 개입되면서 이들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3의 요소로서의 신체적 변화에 그러한 결정적인 매개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과 특정한 평가적 속성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프린츠의 이론은 결국 이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논증할 수 있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신체적 변화의 패턴들과 특정한 평가적 속성들 사이의 체계적 관계를 논증하기 위해 프린츠가 채택하는 전략은 '심적 표상에 관한 인과적 정보 이론'(causal-informational theory) 또는 '표상 이론'(representational theory)이라고도 알려진 프레드 드레츠키(Fred Dretske)의 이론을 동원하는 것이다. 드레츠키의 표상 이론은 지향성 개념의 자연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에 대한 물리주의적 환원을 기획했던 그의 철학체계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론이다.[58]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표상 일반에

---

[57] Ibid., p. 78.

[58] 신상규, 「지향성의 자연화에 대한 드레츠키의 시도」, 『철학논집』 11, 서강

관한 이론이지만, 결국에는 심적 표상, 즉 심적 상태의 지향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게 구상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프린츠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린츠가 드레츠키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그가 감정에 관한 비인지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를 수용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즉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표상'(represent)하는 심적 상태이다. 그렇다면 프린츠가 감정이 평가적 속성들을 그 지향적 내용으로 가진다고 말할 때, 그는 결국 감정이 평가적 속성들을 표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드레츠키 이전에는 무언가를 '표상하다'라는 술어는, 특히 그것이 심적 상태에 적용되는 한, 주로 믿음이나 판단 또는 욕구 등과 같은 인지적 상태들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컸다. 말하자면 주체가 외부의 정보를 믿음이나 판단 또는 사고의 형태로, 즉 명제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개념적인 내용으로 표상함으로써 인식한다는 것이 표상 개념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고안된 드레츠키의 표상 이론에 따르면, 심적 표상은 주체의 의식적인 인지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명제적이거나 개념적인 내용을 그 지향적 내용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드레츠키가 끌어들이는 개념은 인과적 *공변(co-variation)* 관계이다. 공변이란 하나의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또 다른 하나의 사태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불이 날때마다 연기가 난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불 그리고 연기 사이에 인과적 공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불과 연기 사이의 이러한 공변관계는 불이 연기를 야기(cause)하는 사실 때문에 성립하는데, 이 사실은 반대로 연기가 '불의 있음'을 나타내거나 표시한다(indicate)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드레츠키는 이러한 공변관계가 표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자연에 의해서건 인간에 의해서건, 다른 무언가와 공변하게끔

대학교 철학연구소 (2005), pp. 8-12 참고. 이하 드레츠키의 이론과 관련된 모든 설명은 프린츠 (2004)의 분석에 빚지고 있음을 밝힌다.

설계되었거나(set up) 의도된 경우, 즉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경우 우리는 전자가 후자를 단순히 표시한다는 것을 넘어 마침내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보 알림은 화재가 있을 때마다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유에서 우리는 경보가 화재를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공변관계의 개념은 심적 상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심적 표상과 지향성에 관한 드레츠키의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을 바탕으로 드레츠키는 심적 상태가 무언가를 표상한다고 말해질 수 있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무언가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set off)되어야 하며, (2) 진화 혹은 학습을 통해 그 무언가를 탐지하도록 설계된(set up)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드레츠키에게 있어 심적 표상이란, 무언가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는 상태이며, 학습이나 진화를 통해 바로 그 무언가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마련되어 온 것이다.[59]

다시 감정으로 돌아와, 프린츠는 심적 표상에 관한 드레츠키의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감정 이론에 그대로 접목시킨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는 프린츠의 주장이 어떻게 확립되는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는 감정이 어째서 평가적 속성만을 표상하는 상태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체적 지각으로서의 감정과 법칙적 공변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감정에 의해 표상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감정의 개별적 대상과 신체적 변화가 그것들이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보자.

먼저, 감정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때, 그 신체적 변화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주체가 특정한 유형의 대상이나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답할 수 있다. 이때 특정한 유형의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유발되는 신체적 변화 사이에는 모종의 인과적 관계, 즉 법칙적 공변관계가 있다는 전제는 그럴듯하다. 예컨대 뱀과

[59] Prinz, op. cit. (2004), p. 54.

마주치는 상황은 공포 감정과 유관한 신체적 변화를, 도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은 분개 감정과 유관한 신체적 변화를 촉발시킨다.

그런데 신체적 변화와 공변한다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유형의 상황이란 무엇인가? 바로 감정의 '개별적 대상'이다. 앞 장에서 설명된 바 있듯이, 감정의 개별적 대상이란 하나의 개별 감정 유형이 관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태나 상황들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의 죽음, 연인과의 이별, 시험에서의 불합격 등은 내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개별적 대상이다. 신체적 변화가 이러한 개별적 대상과 공변한다면, 우리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지각, 즉 감정이 개별적 대상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프린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의해 야기된 슬픔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이때 나의 슬픔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생각은 나의 슬픔과 결합된 것이지, 사실상 별개의 심적 표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슬픔이 누그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생각이 수그러든 후에도 여전히 슬플 수 있다는 것이 프린츠의 설명이다.[60]

그렇다면 신체적 변화를 지각하는 감정은 신체적 변화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인가? 프린츠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우선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지각하는 상태라고 할 때, 신체적 변화는 당연히 감정의 신빙성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심적 표상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활성화를 신빙성 있게 야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체적 변화를 '등록'(register)할 뿐이지 표상하지는 않는다.[61] 왜냐하면 신체적

---

[60] Ibid., p. 62.

[61] '등록'(registration)과 '표상'(representation)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프린츠는 우리의 시각 체계가 특정한 밝기의 불연속(luminance discontinuity)을 등록하는 상태와, 더 나아가 가장자리(edge)라는 형태를 표상하는 상태가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시각적 상태는 특정한 밝기의 불연속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밝기의 불연속을 등록하지만, 그 상태가 형태를 표상하는 기능을 갖는 한, 그것이 표상하는 것은 밝기의 불연속이 아닌 가장자리 형태인 것이다. Ibid., p. 58.

변화는 심적 표상의 두 번째 조건, 즉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마련되어온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프린츠가 보기에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관점은 감정이 어떠한 진화론적 이점 때문에 자연선택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예컨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고 있다는 정보, 즉 신체적 변화를 탐지하는 일이 그 자체로 왜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은 그것이 진화적으로 자연선택된 것인 한, 신체적 변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탐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감정이 특정한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감정이 신체적 변화를 표상한다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공포는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유발한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우리가 특정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탐지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리하여 프린츠는 감정이 개별적 대상도, 신체적 변화도 아닌 바로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앞서 개별적 대상과 형식적 대상의 구분을 언급하면서 설명된 바 있듯이, 평가적 속성은 감정의 형식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의 개별적 대상들, 즉 감정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태나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예화하는 그러한 속성이다.[62] 이를테면 반려동물의 죽음, 연인과의 이별, 불합격 등이 슬픔을 일으키는 경우 이 상황들은 모두 '상실'이라고 하는 평가적 속성을 예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화를 일으키는 상황들은 '모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평가적 속성을 예화한다. 그렇다면 슬픔과 화를

[62] 엄밀히 말해 프린츠는 감정이 '핵심관련주제'(core relational theme)을 표상한다고 말한다. 이 용어는 리처드 라자루스(Richard Lazarus)로부터 차용된 것으로,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이나 대상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주제(common theme)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자식의 죽음, 파산, 이혼 등 슬픔을 일으킬 수 있는 개별 상황들은, 라자루스의 말로 설명하자면, 모두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상실'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공통 주제를 가진다. 프린츠는 자신의 저서와 논문들 전반에 걸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나 용법상 '평가적 속성'으로 대체하더라도 전혀 무방하다.

유발하는 모든 개별적 대상들은 그것들이 각각 상실과 모욕이라고 하는 평가적 속성들을 예화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해당 유형의 감정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평가적 속성은 그것을 담지하는 개별적 대상(들)보다도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평가적 속성은 감정을 신빙성 있게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적 표상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는 어떠한가? 즉 감정은 평가적 속성을 탐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마련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평가적 속성은 신체적 변화의 경우와는 달리 적절한 진화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포가 심장 박동수의 증가, 혈관의 수축 등의 신체적 변화들이 아닌, 위험이라는 정보, 즉 위험에 해당하는 평가적 속성을 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공포 감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존적 이점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말하자면 공포는 유기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자연선택적으로 마련되어온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린츠의 이론은 이제 감정이 왜 특정한 행동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지까지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할 때, 공포는 위험을 탐지함으로써 도망치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이때 공포가 등록하는 신체적 변화들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등록하고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는 것이 프린츠의 주장이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현상이 어떤 것을 등록하는 상태인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는 상태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에서 가능한가? 바꾸어 질문하자면,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등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는 심적 표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프린츠는 우리가 가진 자연종 개념(natural kind concept)들이 표상을 수행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개 개념(DOG concept)을 예로 고려해보자. 개 개념은 x라는 대상이 특정한 생물학적 속성, 말하자면 유전정보의 총체로서의 특정한 게놈(genome)을 가지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x에

올바르게 적용된다. 즉, 개 개념은 개에 특정한 게놈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게놈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게놈의 존재가 현대 유전학에 의해 밝혀진 것도 인류사에서 보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 개념은 모든 개 그리고 오로지 개만이 갖는 이 생물학적 속성으로서의 게놈을 어떻게 탐지해 왔고 또 탐지해 오고 있는가? 프린츠의 답변은 우리가 개의 생물학적 속성에 의해 야기된(발현된) 개의 외양적 속성들(apparent properties) – 이를테면 '네 발을 가짐', '털이 있음', '꼬리를 흔듬', '짖어댐' 등 – 을 등록을 한다는 것이다.[63] 즉, 지시대상(referent)과 외양들(appearance) 사이에 신빙성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한, 우리는 해당 외양들을 그저 등록하고 이를 통해 그 지시대상을 탐지하는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 프린츠는 그러한 개념의 외양들을 명목적 내용(nominal content)이라 부르며, 그 지시대상을 실질적 내용(real content)이라 부른다. 즉, 개 개념의 실질적 내용은 특정한 게놈에 해당하며, 명목적 내용은 우리가 그 게놈을 추적할 때 이용하는 개의 외양적 속성들인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물 개념(WATER concept)의 명목적 내용은 '특정한 온도 범위에서 액체의 형태를 띔', '대부분의 물질을 녹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옅은 푸른 색조를 띔' 등이 된다. 그리고 그 실질적 내용은 H_2O라는 물리적 분자 화합물로서의 속성이다.

프린츠는 이러한 설명이 감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의 명목적 내용은 신체적 변화이며, 그 실질적 내용이 바로 평가적 속성이다. 즉, 개념이 그 명목적 내용을 통해서 그 실질적 내용을 표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신체적 변화가 예컨대 위험이라는 평가적 속성과 신빙성 있게 함께 나타날 때(공변할 때), 공포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위험을 표상하는 심적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감정이 체화된 평가이자 간접적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3] Ibid., p. 68

이렇듯 신체적 변화들과 평가적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 이론을 통해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은 감정이 세계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평가가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신체적인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감정의 느껴지는 바, 즉 신체적 느낌은 평가적 속성을 표상하는 기능을 가짐으로 인해 동시에 지향성을 담지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느낌 이론의 직관적 호소력은 살리되 그 한계는 극복함으로써 인지주의 이론의 강점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프린츠의 이론은 직접 지각모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감정과 인식적 기저들 간의 인과적 관계, 그리고 감정과 평가적 판단의 관계까지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신체적 지각은 개별적 대상 – 그것이 실제 지각이 되었든, 또는 믿음이나 기억이나 상상이 되었든 – 에 의해 야기되는데, 이 개별적 대상이 다름 아닌 감정의 인식적 기저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야기된 신체적 지각은 결국 우리가 평가적 판단을 내리는 이유를 잠재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까지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 자원을 만족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2. 프린츠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프린츠로 대표되는 이러한 간접 지각론의 독창성 및 현대성은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더이상 주체의 인지의 문제가 아닌, 신빙성 있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신체적 지각은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description)을 제공함으로써가 아니라 올바른 인과관계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이나 판단이 표상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평가적 속성)을 표상하기 때문이다.[6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음이 지적될 수

[64] Ibid., p. 57

있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도 간접 지각모델을 지지할 동기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함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우선, 신체적 변화와 그것에 대한 지각 사이의 인과적 전후 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다.[65] 프린츠에 따르면, 특정한 신체적 변화는 우리가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 유발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신체가 진화적으로 적응해 온 결과로 설명된다. 예컨대 심장 박동수의 증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는 행동을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이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라는 신체적 변화,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평가적 속성 사이의 신빙성 있는 상관관계, 즉 공변관계가 어떻게 자연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제임스식 비인지주의를 이어받는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은 신체적 변화가 감정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간접 지각론의 정의상 주체가 감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해야 하므로, 신체적 변화는 감정의 원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체가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고 말해지는 그러한 감정 상태에 도달하기도 이전에 자신의 신체를 준비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이다. 즉, 간접 지각론을 따른다면, 주체는 예컨대 공포를 느낌으로써 (즉 공포와 유관한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주체의 신체가 위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위험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인과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프린츠는 아마도 신체적 변화가 감정의 원인이 아닌 구성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펼쳐 볼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추론한다. 즉 프린츠의 이론에서 신체적

---

[65] David Pineda, "Emotions, Appraisals, and Embodied Appraisals", *Crítica: Revista Hispanoamericana De Filosofía*, Vol. 47, No. 140 (2015), pp. 9–12.

변화에 대한 *지각*은 감정 상태의 결과(effect)가 아닌 감정 그 자체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변화 그 자체도 감정 상태에 선행하는 원인이 아닌 감정을 불가분적으로 구성하는 바로 그 무엇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 프린츠에게 있어 특정한 패턴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이 지각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66] 프린츠는 신체적 변화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감정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린츠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슬픔을 구성하는 징후(manifestation)이지 슬픔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신체적 변화는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이다'라는 식의 인과적 설명은 애초에 프린츠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닐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판은 우선 일단락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츠가 신체적 변화에 부여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간접 지각론이 여전히 어떤 개념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67] 즉 한편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표상을 통해) 평가적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설명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적절한 행동 반응을 준비시킨다는 두 설명 사이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어떤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변화가 두 가지 역할, 즉 정보를 표상하고 행동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남게 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공포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들 –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수축하는 등 – 이 도주를 위한 준비 상태라고 할 때, 간접 지각론의 주장은 공포의 주체가 위험이라는 정보로 인하여 도주를

---

[66] 감정과 유관한 패턴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주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지각되지 않은 신체적 변화로서 감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린츠는 '느껴진 지각'(felt perception)과 '느껴지지 않은 지각'(unfelt perception)을 구분하면서, 신체적 지각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바로 무의식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Prinz, op. cit. (2005), pp. 9-25.

[67] 이와 관련하여 후술될 지적들은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72-74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준비하게 된다는 주장도 아니고, 반대로 주체가 도주를 준비하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간접 지각론의 주장은 도주를 위한 준비 상태 *그 자체가* 동시에 위험이라는 정보를 표상하여 주체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신체적 변화는 서로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기능(정보 전달과 행동 준비)을 동시에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위와 같은 인과적 순서에 관한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신체적 변화가 감정 에피소드의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지와 관련한 전후관계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는 신체적 변화가 그러한 표상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과연 온전한 주장인지에 대한 의혹이다.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은 바로 이 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프린츠의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전제되는 신체적 변화와 평가적 속성들 간의 표상적 관계를 막상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린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면, 신체적 변화가 평가적 속성에 대해 구성하는 지향적 관계는 예컨대 물(water)의 지각적 외양(perceptual appearance)이 H_20라는 화합물의 물리적 분자들에 대해 구성하는 지향적 관계와 다를 바 없다.[68] 하지만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실이 성립한다: H_20는 물의 외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H_20의 양태로(under the aspect of H_20) 우리에게 지각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의 외양을 봄으로써 H_20라는 분자에 접근한다. 하지만 전자(감정)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도식적 관계가 대칭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주어진 감정에 상응하는 평가적 속성은 바로 정확히 그 속성의 양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예컨대 공포의 현상성이 세계의 위험스러운 측면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위험이라는 속성은 공포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름 아닌

[68] Prinz, op. cit. (2004), p. 67-69.

위험으로서(as danger) 곧바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프린츠의 이론은 평가적 속성들이 *신체적 변화들로서(as bodily changes)* 혹은 그것들을 매개로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만큼 어떤 직관적 호소력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증되기 어려운 진화론적 가설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상정해야만 하는 이론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얼마간의 직관성을 포기하면서 진화론적 가설이 상정하는 전제조건까지 다소 무리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간접 지각론을 압박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그 문제란, 신체적 지각이 특정한 신체 부위를 그 대상으로 갖는 지향적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프린츠가 의존하는 물 지각과의 유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다는 사실이다. 물에 대한 지각은 한편에는 '물의 외양', 다른 한편에는 'H_20 분자'와 같은 식으로, 두 개의 구별되는 것들을 그 지향적 대상의 후보로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의 외양과 H_20 분자의 관계는 동일성(identity) 내지는 구성(constitution)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린츠의 이론에서 감정의 경우 사실상 두 개의 구별되는 후보들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의 지향적 대상의 지위를 놓고 서로 경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해당 신체적 변화가 느껴지는 신체의 부위(들), 그리고 평가적 속성이 그 두 가지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동일성 내지는 구성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체적 변화와 평가적 속성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동일한 객체가 아니므로, 물 지각과 같은 유비를 근거로 신체적 변화와 평가적 속성 사이의 표상적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간접 지각론은 감정의 인식론적 합리성과 관련한 함의, 말하자면 감정이 평가적 판단을 유발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도 일정 부분 호소력을 잃는다고 볼 수 있다. 지각 판단이 지각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감정과 평가적 판단의 밀접한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지각론의 장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에서는 평가적 속성이 기껏해야 간접적으로만 지각되므로, 그와 같은 유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말하자면, 간접 지각론을 따를 때 우리는 마치 연기를 보고 불이 났음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을 통한 추론을 통해 평가적 속성이 예화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감정과 평가적 판단을 잇는 연결고리 또한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감정과 평가적 판단 사이의 보다 간접적인 관계가 무조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신체적 느낌을 신호로 삼는 방법에 숙달된 관찰자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고 있음을 추론한 뒤 이를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 평가적 판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숙련된 관찰자는 평가적 속성과 지각된 대상을 추론적으로 관련지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간접 지각론은 감정과 평가적 판단 사이의 인식론적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지적인 주체의 유추과정을 개입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느낌을 위험, 상실 등의 신호로 먼저 받아들이고 난 뒤, 그 다음 그러한 평가적 속성들이 우리 바깥 대상이나 상황에 위치해 있다고 유추하는 식의 지적인 방식으로 감정 경험에 상응하는 평가적 판단을 형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우려들이 결국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방향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우선, 프린츠의 이론은 신체적 변화라는 요소를 개입시킴으로써 직접 지각론에 비해 감정의 현상성을 보다 직관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서는 감정의 지향적 내용인 평가적 속성을 표상하는 것 또한 신체적 변화이기 때문에, 감정을 경험할 때(즉 신체적 변화를 지각할 때) 우리의 의식이 사실상 향하게 되는 곳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부 신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감정이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향성 조건과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혹자들은 신체적 지각의 방향이 내부를 향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외부 세계와 관련하는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면, 그 방향성 자체가 결정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해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프린츠가 신체적 변화들과 외부 사태들 간의 긴밀한 법칙적 공변관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신체적 지각이 본질적으로 비개념적 내용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즉, 신체적 지각의 표상적 내용 자체는 예컨대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 맹수의 위험성'과 같은 식으로 외부 세계를 포함하는 평가가 아니고, 나의 신체가 보내는 위험성의 신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적 지각이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대한*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포를 경험하는 주체는 신체적 변화를 내적으로 지각해야함은 물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신체적 변화를 유발했던 대상 *또한* 외적으로 의식해야만 하며 (그 공포가 *내 앞의 맹수에 대한 공포*이기 위해서는), 이는 주체의 경험이 내부로 향하기도 하고 외부로 향하기도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하는 깔끔하지 못한 함의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점이 간접 지각론의 직관적 호소력을 해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프린츠가 신체적 변화들이 다양한 인식적 기저들로부터 주어지는 외부 세계에 관한 사실들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그들 간의 공변관계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지적되었던 문제 – 즉 감정의 실질적 내용인 평가적 속성은 외부 세계의 모습이 아닌 신체적 변화로서 주어지고 경험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문제 – 는 신체적 변화와 평가적 속성의 표상적 관계에 대한 프린츠의 주장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감정이 신체적 지각일 경우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비개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이 사실 역시 직접 지각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 지각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69]

---

[69] 물론, 프린츠에게 있어 이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신체적 지각으로서의 감정이 인지 능력이 개입되지 않은 비개념적

프린츠의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체를 중심으로 두면서 확립되는 감정과 가치 간의 표상적 관계는 프린츠의 주장만큼 견고해 보이지만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상적 관계를 상정할 경우, 감정의 인식론적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설명력도 그만큼 약화된다. 요컨대, 프린츠로 대표되는 간접 지각론은 예를 들어 뱀에 대한 우리의 공포 경험에서 뱀의 모습이 예화하는 위험성이 다른 어떤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즉 신체적 변화로서가 아니라) *뱀의 위험성으로서* 우리에게 곧바로 주어진다는 직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없다면, 간접 지각론도 결국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실패한다고 판명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용을 갖는다는 점을 비인지주의 이론의 핵심 대목이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만약 그러한 강경한 비인지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고서도 (즉 *모든* 감정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비개념적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서도) 감정이 때때로 비개념적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그럴듯하게 보장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비인지주의 이론보다 (혹은 인지주의 이론보다) 더 나은 전망을 가진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필자가 다음 장에서 다룰 태도 이론을 옹호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IV. 감정 태도주의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 및 비인지주의 이론들을 검토해 보았다. 감정을 가치에 대한 판단이나 사고로 보는 인지주의 이론들은 감정의 현상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물 및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비인지주의 계열에 해당하는 지각 이론들은 그와 같은 감정의 과도한 '지성화'(intellectualize)를 방지하는 데는 성공적일 지 모르나, 이를 위해 감정과 가치 간에 실증되지 않는, 그리고 겉보기와는 달리 탄탄해 보이지만도 않은 그러한 지각적 관계를 무리하게 상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검토된 이론들이 일정한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이론들이 감정과 가치의 체계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감정을 어떤 단일한 태도 내지는 상태 - 그것이 판단이 되었든 지각이 되었든 - 로 동화시키거나 환원시켜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론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즉 그 한계의 근원은, 그것들이 의존하는 태도나 상태의 종류에 따라 감정이 오로지 개념적인 혹은 명제적인 내용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판단 이론)을 취하거나, 아니면 오로지 비개념적인 혹은 비명제적인 내용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지각 이론)을 취하게 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감정 논의가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의'라는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온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개념적 그리고 비개념적 내용 둘 모두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감정 이론을 세울 수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제3의 이론을 입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장점을 담보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감정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해줄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지각이론들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감정과 가치의 관계 확립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줄리엔 디오나(Julien Deonna)와 페브리스 테로니(Fabrice Teroni)가 최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태도 이론'(Attitudinal Theory of Emotion)[70]이 바로 그러한 이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한다.

디오나와 테로니가 제시하는 태도 이론은 감정을 판단이나 지각이 아닌, *하나의 고유한 태도(sui generis attitude)*로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간략하게 말하자면, 디오나와 테로니에게 있어 감정이란 세계를 향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attitude we take towards the world)인데, 이 태도는 판단이나 지각과 같은 단일한 심적 태도 유형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특정한 태도 유형 – 이를테면 슬픔의 태도, 기쁨의 태도, 분노의 태도 등 – 을 구성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태도'로 보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개괄하고, 이것이 감정 개념을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필자는 감정을 '태도' 개념으로 보는 것과 감정을 '판단'이나 '지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 층위를 가지는지에 집중하여 태도 이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태도주의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70] 태도 이론은 현재 디오나와 테로니에 의해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뮐러에 따르면 그 핵심 아이디어는 멀리건(Mulligan), 헴(Helm), 자무너(Zamuner) 등에 의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주장된 바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의 현상학과 브렌타노(Brentano)의 심리철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Jean Müller, "Emotion as Position-taking", *Philosophia* 46:3 (2018), p. 52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필자는 태도주의 또는 태도 이론이 현대 감정 철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1. 태도 이론: 디오나와 테로니의 입장을 중심으로

1.1. 태도 개념으로서의 감정

디오나와 테로니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감정이란 주어진 대상을 향해 취해진 신체적 태도이며, 그 태도는 해당 대상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correct) 무엇이다.[7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감정이 '태도'로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감정은 곧 태도다.'라는 태도 이론의 명제는 그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지주의의 이론에서도 감정은 판단이라는 명제 '태도'이고, 지각이론에서도 감정은 일종의 지각적 '태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정이 태도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정을 일종의 신체적 태도로 보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감정이 신체적인 것이기 이전에 '태도'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태도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개별 감정 유형은 판단이나 사고 또는 지각과 같은 이미 주어진 여타의 특정한 태도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이고 *고유한(sui generis)* 태도 유형을 구성한다.

태도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각기 다른 개별 감정들, 이를테면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등이 각각의 독자적인 태도 유형으로 파악되는 데 있다. 이는 개별 감정들이 판단이나 지각 등으로 동화되거나 포섭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 동일한 층위에서 비교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믿는 태도(attitude of believing)나 판단하는

[71]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76.

태도(attitude of judging) 또는 지각하는 태도(attitude of perceiving)가 기뻐하는 태도, 슬퍼하는 태도, 분노하는 태도, 두려워하는 태도 등 감정적 태도 유형들과 모두 같은 차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감정의 이와 같은 개념화 방식은 기존의 이론들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감정과 가치의 관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확립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개별 감정을 독자적인 태도 유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근거에서 타당성을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오나와 테로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심리철학에서 태도 개념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론화되고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핵심 사안이 고려된다.

심적 태도를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사안은 다양한 심적 태도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유형의 태도로 분류되는지와 관련한다. 예컨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취하는 '믿음'(belief)이라는 태도는 '욕구' 내지는 '바램'(desire)이라는 태도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는 무언가를 '가정'(suppose)하는 태도는 '추측'(conjecture)하는 태도와 어떻게 다른가? 이에 대한 답은 바로 형식적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해보자. 믿음의 형식적 대상은 '참'(truth)이다. 즉, 어떤 명제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명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욕구의 형식적 대상은 주어진 사태에 대한 '당위'(oughtness)로 알려져 있다. 즉 욕구하거나 바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마땅히 달성되어야 할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다. 가정의 경우 그 형식적 대상은 '가능성'(possibility)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경우로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개연성'(probability)은 추측의 형식적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를 추측한다는 것은 그 경우가 개연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형식적 대상이 다양한 태도 유형들을 개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심적 태도들은 그것들이 관계하는 형식적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유형화된다. 가령 p를 믿는 것(believing that p), p를 바라거나 욕구하는 것(desiring that p), p를 가정하는 것(supposing that p)은 모두 p라는 내용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들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 태도들이 동일한 내용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믿음, 욕구, 가정의 유형으로 개별화되는 것은 이들이 각각 '참', '당위', '가능성'을 그 형식적 대상으로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형식적 대상이 지향적 상태를 개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 확인해온 사실, 즉 가치(평가적 속성들)가 감정의 형식적 대상으로서 감정 유형들을 개별화한다는 사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점이 디오나와 테로니로 하여금 개별 감정들 각각이 하나의 태도 유형을 구성한다는 생각을 추구하게끔 만든 일차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간과해 왔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각기 다른 심적 태도 유형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태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심리철학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태도(attitude)와 내용(content)의 구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태도 이론의 핵심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심적 태도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사안은 바로 이 태도와 내용의 구분과 관련한다. 여기서 내용이란 마음 또는 정신이 관계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태도란 정신이 그 대상과 관계하는 방식(psychological mode)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향하는 내용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심적 태도 일반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적어도 믿음, 욕구, 추측, 지각 등 전형적인 지향적 상태의 경우, 태도와 내용의 구분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S는 p를 믿는다'(S believes that p)고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명제 태도와 'p'라는 내용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태도로부터 내용을 분리시켜 기술하고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직관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S는 p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S는 p를 원한다'거나 'S는 p를 가정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전제되는 것은, p라는 명제의 내용이 각기 다른 심적 태도들에 걸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명제적 내용을 갖는 경험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2] 예컨대 어떤 물리적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 경험의 경우 해당 대상은 곧 그 경험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내용은 여타 다른 유형의 비명제적 태도와 공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P를 지각하는 것(perceiving P)이 가능한 만큼, P를 상상하는 것(imagining P) 또한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태도와 내용의 구분은 심적 태도 개념을 위한 자연스러운 전제 조건인 셈이다.[73]

또한, 이렇게 구분된 태도와 내용은 주어진 심적 태도 유형의 개별 사례들이 어떠한 경우에 옳거나 적합한지를 함께 결정하므로, 둘 모두 심적 태도의 특성에 기여하는 필수적 요인으로 이해된다.[74] 예를 들어 내가 p라는 내용을 믿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p의 참(truth of p)이 나의 그러한 심적 상태의 옳음 조건이 되는 이유는 내가 p에 대해서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p가 아니라 q라는 내용에 대해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나의 심적 상태의 옳음 조건은 q의 참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만약 내가 p에 대해

---

[72] 모든 태도가 본질적으로는 명제적이라는 주장도 한때 제기되어 왔지만,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추세이다. Julien Deonna & Fabrice Teroni, "Emotions as Attitudes", *Dialectica* 69:3 (2015), p. 299 참조. 그리고 지각이론의 검토를 통해서도 유추될 수 있었듯, 지각은 비명제적 태도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Jonathan Mitchell, "Emotional Intentionality and the Attitude-content Distinc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100(2) (2019), 주석 2.

[73] 심리철학에서 이와 같은 식의 태도와 내용의 구분이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는 언어철학의 전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태도와 내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언어의 생산성(productivity)와 체계성(systematicity)이 설명되기 어렵다는 전제이다.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미첼 (2017)의 Ibid., p. 360 참고.

[74]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77.

믿는 태도가 아닌 추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나의 심적 상태의 옳음 조건은 p의 참이 아닌 p의 가능성(possibility of p)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p추정하는 나의 태도는 p가 가능할 때 오직 그 경우에만 옳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심적 태도는 (1) 형식적 대상을 가진, 그리고 (2) 태도/내용의 구분이 전제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시 감정으로 돌아와 보자. 우선 감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바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형식적 대상과 관계하는 지향적 상태라는 것이 맞다면, 감정을 심적 태도의 범주로 보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75] 말하자면 개를 무서워할 때,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고향을 그리워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거나 좌절감에 빠질 때, 우리는 (무언가를 믿거나 판단하거나 욕망하거나 추측하거나 선호하거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특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그러한 감정적 태도들은 위험, 모욕, 상실, 기대, 불능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적 대상(평가적 속성)을 가짐으로 인해 각기 다른 태도 유형으로 개별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들이 서로 구별되는 태도들인 것은 그것들이 각기 다른 평가적 속성들을 그 형식적 대상들로 갖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감정은 여타 다른 심적 태도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개념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디오나와 테로니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이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태도 유형을 구성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 이는 결국 태도/내용의 구분 감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태도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에서 감정이란 특정한 내용과 분리되어 그것에 대해 (평가적으로) 취해지는 태도인 것이다.

---

[75] 유사한 맥락에서 썰(Searle) 또한 감정이 태도/내용의 구분을 예시하는 심적 태도임을 언급한 바 있다. Searle, op. cit. (1983), Chapter 1 참조. 썰은 여기서 감정에 관한 이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태도 이론의 모든 전제나 주장에 동의하거나 지지할 것임을 함축하고 잇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향적 상태로서의 다양한 개별 감정들을 믿음이나 욕구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범주화되는 심적 태도들로 보았다는 점이다.

1.2. 내용 차원의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 이해로

그러나 이런 식으로 태도/내용의 구분이 감정에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정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모두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도들에서도 감정은 (비록 판단이나 지각과 같은 어떤 단일한 종류의 태도로 환원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특정한 내용을 가진 심적 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오나와 테로니가 주장하는 태도와 내용의 구분은 감정이 고유한 태도를 구성한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태도 이론이 기존의 이론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지점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태도 이론이 *내용 차원(level of content)의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level of attitude)이해로의 전환*을 시사한다는 사실이다. 즉 태도 이론에서는 감정이 '평가'로서 이론화되는 원리가 더이상 내용의 차원이 아닌 태도의 차원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점은 태도 이론의 핵심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내용 차원의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보자.

앞서 검토했던 인지주의나 비인지주의 이론들은 모두 감정을 동일한 종류의 태도로 단일하게 환원시켜 이해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이 이론들의 공통된 기반은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표상하는, 즉 *평가적 속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인지적 또는 지각적) 상태임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이해에서 감정은 단일한 종류의 태도 – 인지주의의 경우 판단이나 사고, 비인지주의의 경우 지각 – 를 통해 평가적 속성을 표상함으로 인해 *평가적 내용(evaluative content)*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지주의 이론에서든 지각 이론에서든 감정이 일종의 '평가'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감정의 내용이 평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며, 개별 감정들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개별화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것들이 서로 다른 평가적

내용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기존의 이론들이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내용 차원의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76] 예컨대, 인지주의가 동물이나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그 이론이 끌고 들어오고 있는 *믿음이나 판단의 내용*이 사실상 개념적 또는 명제적 내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 점은 앞선 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바이다. 지각 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감정이 이유에 근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기 어려운 것도 결국 감정이 지각을 통해 평가적 내용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되는 (비감정적인) 지각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획득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의 경우에는 신체적 변화 그 자체가 평가적 속성을 표상한다는 것이 과연 그럴듯한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감정이 평가적 내용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감정을 내용 차원에서 이론화하는 시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음의 사실에 있다. 즉, 이들 이론들이 각자 도입하는 태도 유형 (판단이나 사고 또는 지각)은 그 자체로는 전혀 감정적이랄 게 없지만(nothing emotional about them), 단지 어떤 특정한 평가적 내용들을 갖게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왠지 모르게 감정으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77] 이러한 이해는 무언가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취하는 상태와, 인지적 또는 지각적 태도를 취하는 상태가 심리적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함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났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슬퍼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등 다양한 개별 감정들 사이의 경우에도 그 내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심리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직관적인 생각을

---

[76] Julien Deonna & Fabrice Teroni, “In What Sense Are Emotions Evaluations?”, *Emotion and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26.
[77] Ibid., p. 26.

부추기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이때 다양한 감정들은 단 하나의 동일한 태도가 어떠한 평가적 내용을 갖는지에 의해서만 개별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그 평가적 내용이라는 것은 각 이론들이 의존하는 태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오로지 명제적/개념적이거나 오로지 비명제적/비개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 서로 양립불가능한, 즉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도 차원의 이해'로의 전환이다. 내용 차원의 이해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태도 차원의 이해란, 감정을 평가적 내용에 대한 비평가적(non-evaluative) 태도가 아닌 *평가적 태도(evaluative attitude)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평가적 내용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평가적 태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어떤 심적 태도가 내용 차원이 아닌 태도 그 자체의 차원에서 평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디오나와 테로니는 그 태도의 형식적 대상이 평가적인 것일 때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평가적 내용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해 평가적 속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적 속성들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평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내용 차원의 이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직관을 다소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건에 맞닥뜨린다. 바로 감정의 형식적 대상인 평가적 속성이 감정의 내용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심적 태도 일반의 경우에 형식적 대상이 태도의 내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전제가 감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이다. 그런데 형식적 대상이 태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태도가 형식적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형식적 대상이 태도의 '목표'(target)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태도/내용의 구분이 적용되는 심적 태도 일반의 경우, 형식적 대상은 태도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가 겨냥하거나 목표하는 무엇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도 차원의 이해에서 평가적 속성은 감정적 태도가 향하고

있거나 목표하고 있는 형식적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내용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바로 '개별적 대상'이다. 이러한 이론적 구분을 따른다면, 예컨대 친구와의 이별에 대한 나의 슬픔은 상실을 표상하는 심적 상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친구와의 이별은 나에게 상실이다'라는 식의 조합된 표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심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친구와의 이별'이라고 하는 주어진 내용(개별적 대상)을, 슬픔의 주체인 내가 (슬픔이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상실로서(as loss)* 받아들이거나 간주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은 어떤 점에서 보면 미묘한 혹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상실이라는 내용을 표상하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경험한다는 것과(내용 차원의 이해),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내가 상실로서 간주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나는 슬픔을 경험한다는 (태도 차원의 이해) 두 설명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그 차이가 단지 동일한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오나와 테로니에게 있어서 이 차이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우리가 태도 이론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될 만큼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다. 말하자면 디오나와 테로니는 태도 차원의 이해가 사실상 감정에 관한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올바른 이해 방식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내용 차원의 이해를 따르면서 간과해 왔던 잘못된 함축들을 이론적으로 바로잡는 중요한 틀을 마련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디오나와 테로니는 태도 차원의 이해를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78]

첫째, 태도 차원의 이해에 따를 때 비로소 개별 감정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각기 다른 태도들을 구성한다고 말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표준적 준거가 되는 이른바 '기본설정 입장'(default position)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포, 화, 기쁨, 증오, 사랑 등 다양한

[78] Deonna & Teroni, op. cit. (2015), pp. 296-299.

감정들 간의 차이들을 내용들 간의 차이가 아닌, 마음 또는 정신이 특정한 내용들과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다양한 감정 유형들 간의 차이들을 믿음, 바램, 추측 등 여타 다른 심적 태도들 간의 차이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 역시, 당장은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79] 즉 우리가 내용 차원의 이해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수정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을 굳이 고수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태도 차원의 이해를 기본으로 전제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 태도 차원의 이해를 따를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태도 차원의 이해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태도/내용의 구분이 애초에 심적 태도 일반에 적용되는 이유이자 장점, 즉 서로 다른 태도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직관을 보장한다는 바로 그 장점을 감정과 관련하여서도 똑같이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이 개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즐거움이나 위로감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용 차원 이해에 기반한 기존의 이론들은 '개가 다가옴'이라고 하는 사건(개별적 대상)이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내용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일한 개별적 대상이 '위험함', '바람직함'과 같은 식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표상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해의 함축은 감정의 개별적 대상이 따로 있고, 감정의 내용 또한 별도로 주어진다는 것인데, 태도 이론의

[79] 디오나와 테로니는 우리가 이것을 모든 감정 유형들에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판단이나 지각은 아니지만) 어떤 고유한 태도 유형 – 이를테면 *감정하기(emoting)*와 같은 식의 – 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즉 감정이 *감정하기*와 같은 하나의 새로운 태도 유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 되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될 경우 개별 감정들은 그 각각이 갖는 평가적 내용에 따라 유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시금 내용 차원의 이해로 되돌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오나와 테로니의 주장은 감정 유형들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감정적 태도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bid., p. 296.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감정의 지향적 내용의 구조를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를 무서워하는 것이 개에 대한 어떤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개의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는 반가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나와 그 다른 누군가가 하나의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 디오나와 테로니의 입장이다. 이것이 더 나은 설명임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주체의 감정 반응이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장대소로 반응했던 어떤 농담을 내가 반복해서 듣는 경우 나는 그것을 더이상 재미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담의 *내용*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농담에 대한 나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왜냐하면 아마도 나는 내가 그 농담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웃지 않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그것이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실제로 성공적인 농담이라면) 말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동일한 유형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감정 유형들 간의 차이가 전적으로 내용의 차원에서 자리매김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별적 대상들에 관한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동일한 감정 유형에 속하는 한 모두 동일한 실질적 내용을 가졌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어색함이 따르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에서 우리는 이를테면 뱀을 목격한 아이가 느끼는 공포감과, 주가의 폭락을 가리키는 지표를 본 투자자가 갖는 공포감을 두고 그것들이 '위험'에 관한 것이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아이의 공포는 뱀에 관한 것이고 투자자의 공포는 주가의 폭락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점에서 두 공포 에피소드가 각기 다른 내용을 가졌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80] 디오나와 테로니는 태도

[80] 물론, 내용 차원에 기반한 이론들이 동일한 유형의 개별 감정들의 내용들을

차원의 이해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이해 방식을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도 이론의 틀 안에서 감정의 내용으로서 주어지는 개별적 대상은 평가적 속성을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담지하고 예화하는 무엇이지, 평가적 속성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81] 바꿔 말하자면, 감정은 평가적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감정은 개별적 대상에 대한 태도이고, 이 태도는 그 개별적 대상이 평가적 속성을 예화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옳은 무엇이다. 따라서 태도 차원의 이해는 평가적 속성을 감정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감정 유형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일한 감정 유형이라도 상이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해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감정과 평가적 속성들 간의 관계를 태도 차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태도와 내용이 감정의 합리적 특성에 각각 기여하는 바를 명료하게 분할하여 볼 수 있게 되고, 그로써 감정의 합리성, 즉 감정이 어떻게 옳거나 적절한 것일 수 있는지를 보다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태도 이론에서 감정의 옳음 조건은 어떻게 태도와 내용 둘 다에 의해 결정되는가? 먼저 태도 이론에 따르면 평가적 속성은, 감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정에 수반되는 태도가 목표하는 형식적 대상으로서 감정을 개별화하고 유형화시킨다. 이는 평가적 속성이 감정의 옳음 조건에 기여하지만 그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디오나와 테로니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예컨대 '뱀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 '주식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와 같은 식으로, 두 공포 에피소드가 각각 다른 내용을 지녔다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 내용 차원 이해의 관점에서 두 공포 에피소드는, 프린츠의 용어를 빌리자면, 서로 동일한 실질적 내용(위험)을 가졌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명목적 내용(개별적 대상)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보기에 여기서 디오나와 테로니가 부각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가 감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에 있어, 형식적 대상이 굳이 언급되어야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질적 내용이 있고 명목적 내용이 따로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81] 예컨대 맹수는 날카로운 이빨, 예측불가능한 움직임 등 때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예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험'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기여는 감정의 내용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감정에 수반되는 태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때, '상실'이라는 평가적 속성이 나의 슬픔의 옳음 조건에 기여하게 되는 이유는, 애초에 내가 슬픔이라는 특정한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나의 태도는 나의 슬픔의 옳음 조건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 다른 한편, '친구의 죽음'이라는 내용 역시 나의 슬픔의 옳음 조건에 기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취한 슬픔의 태도는 그 내용이 실제로 나에게 상실일 경우 (또는 상실을 예화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오나와 테로니는 감정의 경우 태도와 내용이 그것의 옳음 조건에 공동으로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믿음을 비롯한 일반적인 심적 태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가 p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할 때에도, p의 참이 나의 믿음의 옳음 조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p에 대해 믿음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며, 나의 이 믿음은 p가 참일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디오나와 테로니는 우리가 감정을 심적 태도 일반의 경우에 비추어 태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태도 이론은 태도/내용의 구분을 감정에 적용시킨 뒤 감정의 평가적 속성을 내용이 아닌 태도 차원에 위치시킴으로써, 감정의 지향성과 합리성을 우리의 직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설명해낸다는 것이 디오나와 테로니의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주장은 감정의 개념적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론화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추상적 차원에서 감정 개념의 이론적 틀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태도로서의 감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본 골조만으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감정의 현상적 측면, 즉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인지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3. 신체적 태도로서의 감정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그 형식적 대상으로 하는 지향적 상태라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감정이 현상적 느낌을 수반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현대 감정 이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정의 현상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마도 신체적 느낌의 측면에서 가장 잘 포착될 수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제임스를 계승하면서 신체적 느낌을 그 핵심으로 끌고 온다는 점에서는 프린츠의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감정이 '신체적' 태도라고 주장하는 디오나와 테로니 또한 감정의 현상성에 대한 해답이 신체적 느낌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들과는 달리 신체적 느낌이 태도에 부가적으로 동반되거나 (인지주의) 또는 태도의 내용을 표상하는 (간접 지각론)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태도를 구성하는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디오나와 테로니는 태도로 이론화되는 감정 개념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감정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 *느껴진 신체적 태도(felt bodily attitude)*이다.[82]

디오나와 테로니에게 있어 감정은 평가적 태도이면서도 동시에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태도이며, 이 태도는 *외부* 대상으로 향하는 태도이다.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신체적 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특정한 외부 대상을 향해 취하는 어떤 *자세(stance, posture)*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은, 프린츠의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름 아닌 신체적 변화로서 우리에게 자각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프린츠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태도 이론은 신체적 변화로서의 감정 반응이 내부로 향하는(inwardly directed) 것이 아니라

[82]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80.

*외부로 향하는 것(outwardly directed)*이라는 점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프린츠의 경우, 신체적 변화는 언제나 평가적 속성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으로서의 감정은 외부 개별적 대상을 향한다기보다는 신체 내부로 향한다는 인상이 불가피했고, 필자는 이 점이 언제나 프린츠 이론의 불안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바로 앞 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신체적 태도, 즉 우리의 '몸이 취하는 자세'라는 것은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대상과 관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체 바깥으로 향한다고 자연스럽게 주장될 수 있다.[83] 이 점은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그 내용으로 표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외부 개별적 대상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태도 차원의 이해 속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디오나와 테로니에게 있어 감정 주체는 외부 대상이나 상황을 향해 특정한 자세 내지는 신체적 태도를 취하는 자기 자신의 몸 또는 신체를 느끼는 주체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신체적 태도는 예컨대 공을 치기 위한 타격 자세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기에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때 그러한 신체적 느낌이 통증이나 가려움 등과 같이 특정한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부분적인 느낌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 또는 전체적으로 자각되는 느낌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신경학자이자 제임스의 초기 지지자였던 에두아르 클라파레드(Édouard Claparède)의 통찰을 통해서도 음미될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제임스의 신체론을 옹호하면서도, 제임스가 설명하는 신체적 느낌이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느낌들에 대한 경험, 말하자면 감각에 가까운 경험으로 잘못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 분노에 빠져들도록 자신을 내버려둬보라;… 이때 당신은 더이상 입술의 떨림, 창백해짐, 또는 수축된 근육 조직 부분들의 고립된 감각들을 뚜렷하게

[83] 이 주장은 후술될 '행동 준비성'(action-readiness) 개념의 사례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다.

구별하여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84]

클라파레드는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의 신체가 단순히 감각을 경험하는 신체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은 감정이 "복합적인 유기적 인상들(multiple organic impressions)의 '게슈탈트'(Gestalt)적 형상(form)에 대한 의식", 즉 "유기체의 총체적/전면적 *태도*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an organism's global attitude)" [85]이라는 그의 서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신체적 느낌에 동반하는 모든 감각들은 특정한 태도를 이루는 하나의 총체적 패턴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은, 감정의 느낌을 특정한 신체 부위들의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이른바 원자론적(atomistic) 접근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86]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향해 특정하게 취해지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자세 또는 신체적 태도를 자각함으로써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이 감정의 현상성에 관한 디오나와 테로니의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이때 전반적인 신체적 태도라는 것은 전체론적 접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느껴진 신체적 태도 개념을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디오나와 테로니는 '행동 준비성'(action-readiness) 개념을 제안한다. 행동 준비성은 현대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유기체가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자원을 동원하여 준비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행동 준비상태는 안면근육 및 골격근, 자율 신경계(심장박동, 발한, 호흡, 소화), 내분비계통(아드레날린 분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 변화들을 통해 활성화되고 지속된다.[87] 최근

---

[84] Édouard Claparède, "Feelings and Emotions" In M. L. Reymert(Ed.), *Feelings and Emotions: The Wittenberg Symposium*, Worcester Clark University Press, (1928), p. 129.

[85] Ibid., p. 128. [강조는 필자]

[86] 인지주의 이론들은 물론, 감정의 느낌을 신체적 느낌으로 완전히 환원시키는 프린츠의 간접 지각론 또한 원자론적 접근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87] Deonna & Teroni, "Getting Bodily Feelings into Emotional Experience in the Right Way", *Emotion Review* 9:1 (2017), p. 59.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감정이 이러한 행동 준비 상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프리다(Frijda)는 감정에서 행동 준비성의 역할을 이렇게 본다:

> 행동 준비는 중립적인 세계를 공포 속에서는 위험하지만 도망칠 틈이 미비하게나마 보이는 곳으로, 매혹 속에서는 입맞춤을 하고픈 상대가 입맞춤을 허용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행동 준비는 피로감, 고통, 절망감 속에서는 머나먼 길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으로, 즐거움 속에서는 출입이나 참가 또는 소비를 위한 계속적인 촉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둔갑시킨다.[88]

이것은 행동 준비상태가 어떻게 세계를 주체에게 다양한 의미(significance)를 가진 것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디오나와 테로니는 행동 준비성이 신체적 태도가 어떻게 동시에 평가적인 것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느껴진 신체적 태도가 외부 세계를 향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신체를 느끼는 태도라면, 그 태도가 평가적이라는 사실은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89] 즉, 감정은 주어진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준비상태라는 점에서 평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 이처럼 행동을 준비하는 신체의 느낌이라면 이는 곧 감정이 '신체적 준비태세'의 경험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때 신체적 준비태세는 대상에 접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복종하려는,

---

[88] Nico Frijda, *The Laws of Emo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7), p. 205: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80에서 재인용.

[89] 여기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정이 신체 내부에 일어나는 변화들의 느낌을 향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디오나와 테로니의 주장은 신체 내부에 일어나는 변화들의 느낌 그 자체가 우리의 감정적 태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도 이론에서 감정이란 느껴진 신체를 향해 취해지는 태도가 아닌, 외부 세계를 향한 느껴진 신체적 태도이고,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또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거나 멀어지려는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동 경향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행동 준비상태로서의 감정이 평가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함은 물론이고, 동일한 감정 유형의 개별 사례들이 어떻게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의 패턴이나 범위를 동반할 수 있는지를 잘 대변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 유형들이 어떻게 행동 준비의 측면에서 기술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포는 위험한 대상이나 상황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체적 준비태세에 대한 경험으로 이해된다. 분노는 모욕을 준 대상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그리고 수치심은 해당 감정을 유발한 대상의 응시로부터 숨거나 벗어나려는 신체의 준비태세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애정의 경우 사랑스러운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접촉하려는, 반대로 혐오는 대상과의 접촉을 방지하려는 신체적 준비태세에 대한 경험이다. 슬픔의 경우에는 상실된 대상과 소통하거나 교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한 신체의 준비태세에 대한 경험이라는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감정을 느껴진 행동 준비상태의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감정이 평가적 태도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정이 특정한 행동 준비성에 대한 경험이라는 사실은 감정이 어떻게 심적 태도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평가적) 옳음 조건을 갖는 태도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디오나와 테로니의 앞선 정의에 따르면, 감정은 감정의 대상이나 상황이 관련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인데, 이 옳음은 그 감정이 해당 평가적 속성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행동을 준비하는 신체에 대한 경험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포 감정은 공포의 대상이 실제로 위험한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은 도주를 통해서건, 은신을 통해서건, 또는 부동 자세를 통해서건, 결국에는 해당 대상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체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분노 감정이 모욕과 관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모욕을 준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신체적 준비태세에 대한 경험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며, 이때 그 느껴진 태도는 그 누군가가 실제로 모욕을 주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이다.[90]

정리하자면, 감정을 태도 일반에 맞추어 이론화하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시도 속에서 감정이란 외부 대상을 향해 취해지는 신체적 태도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해당 대상이 관련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체적 태도 개념은 행동 준비성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이 신체적인 동시에 평가적이라는 주장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태도 이론을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된 태도 이론은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이론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이유, 즉 이것이 기존의 이해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감정을 이론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태도 이론을 옹호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태도 이론을 보다 굳건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것은 감정을 태도 차원에서 이해하는 입장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확인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태도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이론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태도 이론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

[90] 물론, 태도 이론의 생산성 및 실효성은 얼마나 많은 감정 유형들이 이처럼 행동 준비성의 측면에서 그럴 듯 하게 기술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오나와 테로니는 이것이 실증의 문제(empirical issue)라고 말하면서, 현재 그 가능성을 낙관하게 하는 여러 증거들이 행동심리학을 비롯한 경험과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Deonna & Teroni, op. cit. (2015), p. 303 각주 14.

2. 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자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태도 이론이 기존의 시도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이론적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만으로도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석철학 내 감정 논의에서 특히 첨예하게 나타나는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대립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실마리와 토대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도 이론이 기존의 확립된 이론들에 우위를 점하거나 적어도 그것들과 대등하게 경합할 수 있는 감정 이론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것이라 주장되는 만큼 뒤따를 수밖에 없는 회의적 시각들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디오나와 테로니가 이러한 시각들에 맞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태도 이론이 어떠한 방향에서 보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1. 지각 이론의 반론

필자가 보기에 현재 태도 이론에 가장 심각한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은, 감정의 경우 태도 이론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태도와 내용의 구분이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주요 경쟁 이론인 지각 이론의 관점에서 주로 제기되는 것으로, 감정 경험의 특성상 감정과 관련하는 가치가 반드시 감정의 내용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취지의 주장들과 관련한다.[91] 이러한 주장의

[91] 이러한 반론의 구체적인 논증들로는 Jerome Dockic & Stephanie Lemaire, “Are Emotions Evaluative Modes?”, *Dialectica* 69:3 (2015); Mauro Rossi and Christine Tappolet, “What Kind of Evaluative States are Emotions? The Attitudinal Theory vs. The Perceptual Theory of Emotion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9:4 (2019); Jonathan Mitchell, “Emotional Intentionality and the Attitude-content Distinc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00:2* (2019) 등을 참조.

시초로 자주 인용되는 피터 골디(Peter Goldie)의 말을 들어보자:

> 그때 나는 빙판길이 단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물론 여전히 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위험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의 위험성을 어떤 독특한 방식에서 감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 여긴다. 이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다가 어떤 부가적인 현상적 요소 — 아마도 '느낌'(feeling) 같은 — 가 더해진 것으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그보다도,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전체가 새로워진 것이다. X를 느낌 없이 Y로 간주하는 것과 X를 느낌과 함께 Y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일한* 내용을 향한 상이한 태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또한 내용*에* 있다. 비록 그 차이가 말로는 포착되지 않을 지 모르지만 말이다.[92]

위의 인용은 감정이 경험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태도와 내용의 구분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감정의 현상적 느낌을 단순히 어떤 '중립적' 내용에 부가되는 무엇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골디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것은 먼저 감정의 *현상적 통일성*(phenomenological unity)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감정적 경험을 이루는 데 태도가 기여하는 바 - 슬프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는 방식 - 와 내용이 기여하는 바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93] 그러나 이에 대해 디오나와 테로니는 감정 경험의 통일성과 태도/내용의 구분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

[92] Peter Goldie,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2000). pp. 59-60.

[93] 유사한 맥락에서 로버츠는 감정 경험의 통일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감정적] 해석(construal)은 중립적으로 지각된 대상에 대해 내려지는 해석(interpretation)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특징화(characterization), 즉 그 대상이 스스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Robert Roberts, *Emotions: An Essay in Aid of Mor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80.

없다고 답변한다.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을 물과 기름의 경우처럼 두 요소가 서로를 침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존하는 상태로서가 아닌, 소금 물과 같은 균질적 혼합체(homogeneous blend)를 닮아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94]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상적 통일성은 감정이 균질적 혼합체로서 경험되는 심리적 실체임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 그것의 현상성이 두 개의 독립적 변수 — 태도와 내용 — 의 함수일 수 없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디오나와 테로니는 감정의 태도와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으로 개념화되어 구분될 수 있다고 변론하는 것이다.

필자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러한 해명에 견해를 같이 한다. 감정이 *경험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심리적 실체라는 주장과, 그것이 이론적으로 해체되어 분석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차원의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디의 견해는 단순히 현상적 통일성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될 때가 아니라, 감정적 느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aboutness)에 대한* 주장, 또는 감정적 느낌의 *내용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될 때 보다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다. 이러한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무언가에 대하여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평가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이는 곧 감정이 현상적 느낌을 통해 평가적 속성을 그 내용으로 표상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공포 경험에서는 위험이, 분노 경험에서는 모욕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공포와 분노가 각각 위험과 모욕을 표상함으로써 그러한 평가적 속성들이 그 내용 안으로 포함(feature in)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적 속성이 감정의 내용에 (표상적으로) 포함된다는 주장은 내용 차원 이해에 기반한 기존의 이론들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된 함의이다. 특히 그 평가적 내용이 곧 감정이 동반하는 *현상적 느낌의 내용*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은 지각 이론이 구상되는 데

[94] Deonna & Teroni, op. cit. (2015), p. 305.

핵심적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95] 따라서 지각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물이 빨간색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의 '빨간색임'(redness)을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오로지 그것을 직접 보는 방법뿐이다. 마찬가지로, 빙판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을 감정 경험의 내용으로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빙판길을 두려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맞다면, 감정은 주어진 평가적 속성에 대한 지각과도 같은 경험이며, 그 경험의 현상성 및 지향성은 태도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나 상정 없이 다만 그 평가적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남김 없이 설명되고 또 개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각 이론가들은 감정의 경우 태도와 내용의 구분이 경험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론적으로조차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감정 경험에서 가치(평가적 속성)가 관여되는 방식(the way value figures in emotional experience)을 고려한다면, 태도/내용 구분을 감정에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의 논지이다.

우선 이에 대해 디오나와 테로니는 지각 이론의 주장이 의심스러운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재반론을 통해 태도 이론을 옹호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각 이론은 예컨대 '빨간색임'(redness)이나 '단단함'(hardness)이라는 속성이 시각이나 촉각 경험의 내용으로서

[95] 한편 인용된 골디의 감정 이론은, 그러한 표상적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적 느낌을 지각적 느낌(직접 지각론)이나 신체적 느낌(간접 지각론)이 아닌, 'Feeling Towards'라고 하는 아예 새로운 개념적 용어로 포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골디가 이 용어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마도, 그가 지각의 현상학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감정적 느낌의 풍부함을 충분히 다룰 수 없고, 그렇다고 감정의 느낌을 신체적 느낌과 완전히 동일시할 경우 감정이 외부로 향한다는 직관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추측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골디의 'Feeling Towards' 개념은 행동 준비성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신체적 태도 개념을 예비(anticipate)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골디의 이론의 자세한 내용은 Goldie, op. cit. (2000) 참고.

주어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험이나 상실이 공포나 슬픔의 내용으로서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정 경험이 곧 평가적 속성에 대한 '지각적 경험'(그것이 직접 지각이든 신체적 지각이든)이라는 전제가 먼저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디오나와 테로니는 바로 이 전제를 의심할 만한 근거들이 제기될 수 있는 한[96] 태도/내용 구분에 대한 부정이 애초에 잘못된 또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반론은 자칫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각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태도/내용 구분이 감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왜 감정을 지각적 경험으로 전제할 때 그 현상성과 지향성이 가장 잘 설명되는지를 위한 논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필자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재반론에 덧붙여, 태도 이론과 지각 이론이 애초에 각각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면 태도/내용 구분에 대한 부정이 태도 이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태도 이론이 태도와 내용의 구분을 중요하게 전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그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개별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임을 상기하는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태도 이론은 감정을 이론화하는 데 있어 감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 주체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론이다.[97] 이것이 맞다면, 태도 이론이 내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태도,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태도를 전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와 관련한다고 볼 수 있따. 그러한 전제에 따르면, 감정이 그 형식적 대상인 평가적 속성과 관계하는 방식은 여타의 일반적인 심적 태도들이 각자의 형식적

[96] III장에서 우리는 감정을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지각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97] 여기서 주체의 역할이란 바로 주체의 '태도'가 기여하는 바를 말한다.

대상들과 관계하는 방식과 정확히 동일하다. 예컨대 우리가 p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경험에서 (믿음이 현상적 느낌을 동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과연 두드러지는 경험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p는 참인 것으로서(as true)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p의 참'이 곧 믿음의 내용인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때 믿음의 내용은 p이고 (p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참인 것으로서 경험되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p에 대해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이다.

요컨대 태도 이론은 참이 믿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서 평가적 속성이 감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함축하며, 이러한 태도 이론의 전제와 함의는 애당초 지각 이론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감정을 지각적 경험으로 볼 다른 어떤 강력한 증거나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태도/내용 구분에 대한 부정 자체는 태도 이론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각론자들이 태도 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이 태도와 내용이 구분되지 않는 지각적 경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개별 감정 유형들이 믿음, 추정, 희망 등과 같은 여타의 심적 태도들과 동일한 선상 위에서 동일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적극적으로 근거지워야 할 것이다. 게다가 감정을 태도 차원에서 내용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애초에 우리의 표준적 입장(default position)이라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설명이 그럴듯하다면, 감정이 평가적 속성을 그 내용으로 표상하는 지각적 경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즉 내용 차원의 이해는) 오히려 수정주의적(revisionist) 입장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더욱이 지각론자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보충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각론자들은 태도 이론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가치가 감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포기하기 꺼려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감정을 통해 가치를 '파악'(apprehend)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에서 비롯된 강한 직관 때문일 수 있다. 예컨대 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발언에 내재해 있는 모욕성을 파악하도록 하므로 화의 내용은 해당 발언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욕성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지각이론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 이론들에 깔려 있는 직관으로서, 감정이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서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강한 직관이다.

이와 같이 감정이 가치를 파악하는 또는 인식하는 상태라고 보는 입장을 *인식론적 관점*(epistemic view)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문제는 디오나와 테로니 역시 이 인식론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98] 그런데 감정이 가치를 표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은 표상주의에 입각한 지각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심적 상태가 무언가를 그 내용으로 가지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 무언가를 겨냥하거나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는 상태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태도 이론이 본보기로 삼는 심적 태도 일반의 경우들만 보더라도, 인식론적 관점이 과연 태도 차원의 이해와 양립가능한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내가 냉장고에 우유 한 팩이 있다고 믿는 경우, 그 명제를 믿는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그것의 참을 '파악'한다고까지 보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아 보인다. 즉, 내가 우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유가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내가 알게(파악)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다. 오히려, 내가 우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는 어떤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과

---

[98] "지각 경험의 현상성이 지각적 속성들을 주체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 경험의 현상성은 평가적 속성들을 주체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따라서 파악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Deonna & Teroni, op. cit. (2012), p. 86.
"서로 다른 감정들은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한 파악이다. 따라서 두려움은 위험에 대한 파악, 화는 모욕에 대한 파악, 즐거움은 재미에 대한 *파악*이다." Deonna & Teroni, op. cit. (2014), p. 16 [강조는 필자]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파악한다는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태도 이론이 가치가 감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다 정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가치를 파악하거나 인식하기 위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감정이 어떻게 가치를 파악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가치와 관계하는 태도일 수 있는가라는 식의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디오나와 테로니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한 태도 이론은 지각 이론자들에 반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만약 태도 이론이 이 물음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보다 나은 이론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물론, 태도 이론의 본래 취지를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는 입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수정된 태도 이론의 가능성:

필자는 태도 이론을 인식론적 관점으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는 동시에 디오나와 테로니의 본래의 취지에 따를 수 있는 이론을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 뮐러(Jean Müller)의 이론[99]을 매개로 삼아 제안하고자 한다. 뮐러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일종의 '입장 취하기'(position-taking)이다. 감정이 세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감정이 태도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뮐러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내용 차원이 아닌 태도 차원에서 평가적임을 주장하는 이론가로서, 디오나와 테로니와 상당히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99] Jean Müller, "How (Not) to Think of Emotions as Evaluative Attitudes", *Dialectica* 71:2 (2017); Jean Müller, op. cit. (2018).

있다.[100]

하지만 뮐러의 이론이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대목은 태도 차원에서 감정과 가치를 연결시키는 방식에 있다. 뮐러는 감정이 가치를 인식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뮐러는 디오나와 테로니가 전제하는 인식론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이 가치를 인식 또는 파악하는 상태도 아니라면, 감정은 어떻게 평가적인 것일 수 있는가? 뮐러에 따르면, 감정은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치에 *반응하는 방식(ways of responding to values)*이다.[101] 그렇다면 뮐러에게 있어 감정이 평가적 태도라는 주장은 감정이 가치에 대한 인식적 파악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반응*(response)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된다. 달리 말하자면, 감정은 그 자체로 가치를 파악하거나 인식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선행하여 인식된 가치에 대해 반응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반응적 관점*(responsive view)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태도 일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필자는 p에 대한 믿음이

---

[100]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뮐러는 감정을 '지향적 양태'(intentional mode)의 차원에서 평가적이라고 주장한다. 디오나와 테로니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태도 차원의 이해가 마련하는 이론적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뮐러의 감정 이론을 태도주의 이론의 하나로 분류한다. 한편 필자는 뮐러의 이론을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의 대안적 이론이 아니라 보완적 이론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디오나와 테로니가 태도주의를 정초시켰을 뿐 아니라, 그 관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쟁점별로 태도 이론을 확립시킨 바, 이 점에 관한 한 뮐러의 이론도 여전히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뮐러의 이론을 통해 태도주의가 확장될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만, 디오나와 테로니의 이론을 여전히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뮐러는 감정의 현상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이론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뮐러의 수정된 이해와 디오니와 테로니의 신체적 태도 개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도 여기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임을 밝힌다.

[101] 감정을 비롯한 일반적인 태도들이 왜 그 형식적 대상들(가치)을 파악하거나 인식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증으로는 Müller, op. cit. (2017), pp. 285-293 참고

p를 *참으로서 간주하는(taking-p-as-true)* 태도이지 그 자체로 p의 참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뮐러는 이 때 '참으로서 간주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명료화하기 위해, 프레게(Frege)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른바 '믿음적 태도들'(doxastic attitude)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참조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믿음과 판단은 흔히 명제의 참을 *'승인·인정·수용'(acknowledge)*하는 것으로 특징화되는데, 뮐러는 이 동사가 감정적 태도들을 특징화하는 데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뮐러에게 있어 믿음적 태도들 또한 기본적으로 형식적 대상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정에 이 동사를 적용한다면, 감정은 어떤 대상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고 있음을 승인 또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감정이 가치를 승인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감정은 대상으로부터 가치를 파악하는 상태라기보다는 대상이 예화하는 가치에 반응하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한 이해가 된다.

그런데 뮐러의 이러한 제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태도가 취해지기 전에 이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믿음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p의 참 (또는 참의 외관, appearance of truth)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만 주체는 비로소 p를 참으로서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믿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인 것으로 보여지거나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즉, 참으로 해석됨construed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은 적극적으로 믿거나 확신하지는 않는 (완전한 의미에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의 경우에도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어야 한다.[102]

---

[102] 디오나와 테로니가 인식론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설

뮐러는 감정에 선행하여 느껴거나 인식되는 평가적 해석(evaluative construal), 이른바 '전-감정적 가치 자각'(pre-emotional value awareness)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가치 인식을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뮐러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 인식을 근거지우기 위한 논거와 주장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와있다. 이를테면 '관점 지각'(aspect-perception)은 우리의 주의 및 관심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가치 지각으로서, 감정 그 자체로 바로 동일시하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비감정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살피는 행위는 도로의 잠재적인 위험을 관점적으로 지각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점 지각은 또한 세련된 개념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동물이나 영유아의 일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원초적인 유형의 가치 경험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비명제적 형태의 자각을 현상학에서는 가치를 '느끼는 것'(feeling valu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뮐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사실들이 감정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불쾌하군요', '상당히 재미있군요', '저속하기 그지 없다' 등 수많은 가치 경험 내지는 인상에 대한 보고들은, 감정 경험에 대한 보고인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감정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다른 많은 경우, 감정 보고라기보다는 화자에 의해 소위 "차갑게" 인식된 가치 경험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103]

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믿음의 경우와는 달리, 감정적 태도가 취해지기 이전에 형성되는 가치 인식/자각 내지는 '가치 직관'(value intuition)이라는 것은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이 디오나와 테로니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디오나와 테로니에 따르면, 감정이 유발되기 전에 형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 인식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후보들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나 영유아가 가질 수 있기에는 인지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인식'이라고 상정하기에는 그 심리적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Deonna & Teroni, op. cit. (2012), pp. 93-94. 그러나 후술될 뮐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성급한 결론이 된다.

[103] 이에 추가적으로 뮐러는 전-감정적 가치 자각에 대한 전제가 심리학을 포함한 경험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심리학에서 주

뮐러는 또한 전-감정적 가치 자각이 꼭 의식되거나 알아차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예컨대 지갑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졌지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그곳에 지갑이 있었음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은 일상적으로 흔한 일이다. 이때 그 지갑은 지각적으로 등록됐지만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자각되지 못한 경우라고 이해된다.[104] 이와 마찬가지로 전-감정적 가치가 자각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럴듯하게 짐작해볼 수 있다. 요컨대 전-감정적 가치 자각은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고 해서 필연적으로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의식적으로 자각되는 것도 아니다.

뮐러에게 있어 전-감정적 가치 자각의 존재와 관련한 이러한 근거들은 감정이 반드시 가치를 파악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인식론적 전제로부터 태도 이론을 분리시킬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로써 뮐러는 감정이 평가적 태도라는 사실이 그것의 반응적 특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확립한다: 감정은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인데, 이 태도는 해당 대상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 것으로 승인·수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뱀에 대한 나의 공포는 뱀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위험한 것으로 수용(acknowedge-as-dangerous)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인식론적 관점을 따를 때와는 달리, 이 경우, 나는 뱀의 위험성을 공포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위험성을 어떤 형태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지적으로든 비인지적으로든) 이미 자각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이 바로 감정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뮐러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감정을 그 형식적 대상인 가치에 대한 승인·인정 차원에서의 반응으로 특징화할 때 우리는 감정의 합리적

장되는 버전의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에 따르면, 감정은 주체가 처한 상황의 의의를 결정하는 사전 인지(prior cognition)에 의해 야기된다. Müller, op. cit. (2017), p. 293-294.

[104] Ibid., p. 290.

기준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상실을 겪은 누군가가 전혀 슬픔이나 비탄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가 아직 그 상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누가 보더라도 참기 힘든 모욕이나 수모를 당한 누군가가 전혀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가 그 일을 진정 모욕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05]

뮐러의 이러한 반응적 관점을 디오나와 테로니의 신체적 태도 개념에 적용해 본다면 감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감정은 외부 대상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서, 그 반응은 해당 대상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거나 적절한 것이다. 감정이 특정한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준비하는 경험이라는 디오나와 테로니의 주장은 감정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파악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승인하거나 수용하는 특정한 방식이라는 뮐러의 반응적 관점과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고 필자는 제안한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달리 말하자면, 그 대상이 주체에게 어떤 특정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3. 태도 이론의 장점

필자는 태도 이론이 이와 같이 반응적 관점에서 일정한 수정을 거쳐 이해될 경우 감정이 '태도'라고 하는 주장의 진정한 의미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뮐러의 이해 방식은 태도 이론이

[105] 여기서 그러한 상실이나 모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때 그 의미는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앎', 즉 영어 'aware of'나 'apprehend'의 의미보다는, 이미 자각했던 것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는 차원에서의 'recognize'나 'acknowledge'에 가까운 수용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본문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착안한 보다 주된 이유는 태도 이론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각 이론의)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틀과 풍부한 이론적 자원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임을 실증해 보이는 데 있었다. 즉 감정을 가치에 대한 파악으로 보든 반응으로 보든, 감정이 내용 차원이 아니라 태도 차원에서 가치와 관계하는 평가라고 하는 기본 골자가 유지되는 한, 태도 이론은 평가적 내용에 호소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그 이론적 구조상 발휘하지 못하는 유연성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태도 이론이 갖는 주요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태도 이론은 무엇보다도 감정을 단일한 유형의 태도로 환원시키는 내용 차원 이해에 기반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개념적이든 비개념적이든, 또는 명제적든 비명제적이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현대 감정 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인지주의 대 비인지주의의 이원론적 대립을 그 근본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태도 이론은 감정이 신체적 태도라는 사실을 통해 감정이 행동 및 욕구, 그리고 평가적 판단과 맺는 밀접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말하자면 감정은 세계를 향해 우리가 신체적으로 취하는 태도(반응)이므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욕구 내지는 욕망을 형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공포는 재빨리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태도 유형이다.

그리고 이때 감정은 평가적 판단에 동원되는 평가적 개념들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표준적 조건들(canonical conditions of application)을 제공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가적 개념의 숙달 및 그에 따른 평가적 판단을 형성하는 토대로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태도 이론은 감정을 외부 대상을 향해 취해지는 태도로 이해함으로써, 비인지주의 간접 지각이론과는 달리, 그 신체적 느낌이

신체 내부로 향한다거나 신체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어색함을 피할 수 있다.

넷째, 태도 이론은 개별 감정 유형들을 믿음, 판단, 욕구, 지각, 상상 등 여타 다른 태도들과 나란히 분류함으로써, 감정이 그것들을 인식적 기저로 삼아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감정이 상상하기를 그 인식적 기저로 하여 내용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은, 태도 이론이 미학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허구의 역설' 문제를 기존의 이론들에 비해 더 자연스럽고 정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감정 이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106]

[106] 이와 관련해서는 맺음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한다.

맺음말

본 논문은 평가로서의 감정 개념을 이론화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주요 감정 이론들이 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양자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의 일면적 측면과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으로 태도 이론을 제시하였다.

Ⅰ장에서는 감정 개념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탐구 대상은 지향성과 현상성 그리고 합리성을 가진 감정 에피소드로서 느낌, 기분, 감각, 욕구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감정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Ⅱ장에서는 그와 같이 설정된 감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으로 인지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인지주의 이론은 감정을 명제적 태도로 환원시킴으로써 감정의 지향성 및 합리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감정 유형들의 개별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별적 대상'과 '형식적 대상'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감정이 어떻게 가치와 관계 맺게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인지주의는 감정을 '평가'로서 이론화한 최초의 현대적 접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인지주의는 개념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존재들의 감정, 그리고 이른바 '저항적 감정'을 수용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비판되었으며, 그 원인이 인지주의가 도입하는 명제적 태도들이 비개념적 내용을 불허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감정의 현상성과 관련하여 설명력의 한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명제적 태도들이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명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따라서 III 장에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감정의 지향성과 현상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 지각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직접 지각론의 경우, 감정이 다양한 인식적 기저들에 대해 갖는 의존적 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프린츠로 대표되는 간접 지각론의 경우에는 신체적 변화와 가치가 공변관계에 기반한 표상적 관계를 갖는다는 그 핵심 논제가 감정의 지향적 특성과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II 장과 III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중간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태까지의 주요 감정 이론들이 감정과 가치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감정을 각각 인지와 지각이라는 단일한 상태로 동화시켜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인지적 상태와 지각적 상태가 각각 개념적 그리고 비개념적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이들 이론들은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언제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필자는 IV 장에서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보고, 이를 적합하게 해낼 수 있는 이론으로 디오나와 테로니의 태도 이론을 소개하고 옹호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필자는 태도 이론이 도모하는 내용 차원의 이해에서 태도 차원의 이해로의 전환이 감정을 평가로서 이론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규명하였고, 더 나아가 그 틀이 지각 이론의 반론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뮐러의 이론의 도움을 받아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감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감정이란 외부 대상을 향해 취해진 신체적 태도이며, 이 태도는 그에 대응되는 평가적 속성을 해당 대상이 예화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본고의 출발점에서 설정하였던 기준을 충족시킨다. 먼저 신체적 태도는 평가적 속성을 목표로 하여 외부 대상과 관련하며, 동시에 그 자체로서 행동준비성의 측면에서 느껴지는 무엇이므로, 지향성과 현상성

조건을 통합적으로 만족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신체적 태도 개념에 전제되는 태도와 내용의 구분은, 감정의 옳음 조건이 태도와 내용 둘 모두의 필수적인 기여에 의해 결정되게끔 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합리성을 균형 잡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태도 이론이 미학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허구의 역설'(paradox of fiction)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단하게 전망하면서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

우선 허구의 역설이란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허구적 대상이 실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감정적 반응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철학적 퍼즐이다.[107]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안되었던 대부분의 주요 해결책들은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애초에 이것이 역설이 된 것도 우리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존재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강한 인지주의적 직관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인지주의가 더이상 유력한 감정 이론으로 여겨지지 않는 오늘날, 허구의 역설은 대안적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감정과 그것의 인식적 기저를 개념적으로 구분시키는 태도 이론의 접근법은 허구의 역설 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태도 이론은 감정을 믿음이나 판단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개념적 층위에 위치시키는데, 이는 감정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심적 상태들로부터 그 내용을 이어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이제 우리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 반응이 일상적인 감정 경험처럼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

[107] 이 문제는 결국 허구와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그 해결책은 반드시 감정 본성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강구되는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허구의 역설은 특정한 감정 이론의 응용력 및 건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문제 사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허구의 역설 문제를 허구와 감정에 관한 우리의 직관이 반영된 세 가지 진술로 이루어진 철학적 퍼즐의 형태로 처음 제기한 것은 콜린 래드포드(Radford)이다. 자세한 내용은 Colin Radford,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49 (1975), pp. 67-80 참조.

‘진지한’(serious) 또는 ‘단정적인’(assertive) 심적 상태로부터 그 내용을 이어받는 경우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식적 기저, 말하자면 허구에 의해 활성화되는 ‘상상하기’(imagination) 에피소드와 같은 ‘비진지한’(non serious) 또는 ‘비단정적인’(non assertive) 심적 상태로부터 그 내용을 이어받는 특수한 형태의 감정 경험이라는 이해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108]

물론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이 상상하기와 같은 비단정적 태도를 그 인식적 기저로 한다는 제안 그 자체만으로 허구의 역설의 근본적인 물음이 모두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허구의 역설을 위한 충분한 해결책이라면, 예컨대, 감정이 허구 감상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상상 에피소드를 기저로 유발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감정 반응이 왜 일상적 감정과는 상이한 행동 양상을 동반하는지, 그것을 과연 ‘진정한’(genuine)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의 합리성 내지는 규범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필자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윤곽을 좀 더 구체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허구에 대한 감정이란 허구 작품 속 내러티브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상상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는 평가적 태도로서, 그것은 해당 내러티브가 특정한 평가적 속성을 예화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대상이나 상황이 현실이었다면 했을 법한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행동 비대치성 문제) 우리의 행동 준비태세로서의 신체적 태도가 바로 현실이 아닌 상상된 대상이나 상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특정한 평가적 속성과 관련하여 느껴진 신체적 태도인 한, 허구에 대한 감정 반응은

[108] 한편, 인지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유력한 해결책들이 흔히 동원해 온 ‘믿는 체하기’(make-believe) 개념이나 ‘시뮬레이션’(simulation) 개념은 모두 상상하기 활동의 일종으로 포섭될 수 있는바, 태도 이론은 기존의 완성된 해결책들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듯하다. 즉 태도 이론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해결책은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에 가담하지 않고서도 (즉, 상상하기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충돌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시달리지 않고서도) 기존의 해결책들이 내세워왔던 핵심 아이디어들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합리적인 것이거나 유사-감정이 아닌 진정한 감정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안은 여전히 스케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허구의 역설을 위한 본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작업은 인지주의의 대안으로서 태도 이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 작업은 감정이 유발되고 경험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방식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도 가치 있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김태경,「지각 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 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공유진,「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의 수정과 확장」,『철학연구』48,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신상규,「지향성의 자연화에 대한 드레츠키의 시도」, 『철학논집』1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5)

양선이,「감정진리와 감정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고찰」,『철학연구』49,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오 성,「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이론의 경계 짓기: Nussbaum 과 de Sousa 의 논의를 중심으로」,『철학사상』2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윤보석,「경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철학사상』3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천현득,「감정은 자연종인가? – 감정의 자연종 지위 논쟁과 감정 제거주의」『철학사상』2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최근홍,「허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연구: 허구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과 감정 비인지주의의 통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Brady, Michael S. *Emotional Ins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2013)

Claparède, Edouard. "Feelings and Emotions" In M. L. Reymert(Ed.), *Feelings and Emotions: The Wittenberg Symposium*, Worcester Clark University Press (1928)

Deigh, John. "Cognitivism in the Theory of Emotion." *Ethics* 104:4 (1994)

Deonna, Julien., and Teroni, Fabrice.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Routledge (2012)

_____, "In What Sense Are Emotions Evaluations?", *Emotion and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_____, "Emotions as Attitudes", *Dialectica* 69:3 (2015)

_____, "Getting Bodily Feelings into Emotional Experience in the Right Way", *Emotion Review* 9:1 (2017)

De Sousa, Ronald. *The Rationality of Emotion*, MIT Press (1987)

Dockic, Jerome., and Lemaire, Stephane. "Are Emotions Evaluative Modes?", *Dialectica* 69:3 (2015)

Goldie, Peter.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Doring, Sabine A. "Seeing What to Do: Affective Perception and

Rational Motivation", *Dialectica* 61:3 (2007).

Frijda, Nico H. *The Laws of Emo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7)

Gorden, Robert M. *The Structures of Emotions: Investigations in Cognitive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Gow, Laura. "Everything is Clear: All Perceptual Experiences are Transparent",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7:2 (2019)

Greenspan, Patricia S. *Emotions and Reason*, New York: Routledge (1988)

Hacker, Peter M. 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mo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6:3 (2004)

James, William. "What is an Emotion?" *Mind*, Vol. 9, No. 34 (1884)

Kenny, Anthony.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Maiese, Michelle. *Embodiment, Emotion, and Cogn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Mitchell, Jonathan. "Emotional Intentionality and the Attitude-content Distinc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100:2 (2019)

Mulligan, Kevin. “From Appropriate Emotions to Values”, *The Monist* 81.1 (1998)

Müller, Jean Moritz. “How (Not) to Think of Emotions as Evaluative Attitudes”, *Dialectica* 71:2 (2017)

_____, “Emotion as Position-taking”, *Philosophia* 46:3 (2018)

Nussbaum, Martha C.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ineda, David. “Emotions, Appraisals, and Embodied Appraisals”, *Crítica: Revista Hispanoamericana De Filosofía*, Vol. 47, No. 140 (2015)

Prinz, Jesse J.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_____, “Are Emotions Feeling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2(8-10) (2005)

Radford, Colin.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49 (1975)

Raftopoulos, Athanassios.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atural science inform philosophy?*, MIT Press (2009)

Roberts, Robert. *Emotion: An Essay in Aid of Mor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Rossi, Mauro., and Tappolet, Christine. "What Kind of Evaluative States are Emotions? The Attitudinal Theory vs. The Perceptual Theory of Emotion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9:4 (2019)

Salmela, Mikko. "Can Emotion be Modelled on Perception?", *Dialectica* 65:1 (2011)

Searle, John R.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1983)

Solomon, Robert C. "The Passions: The Myth and Nature of Human Emotion", *Anchor Press* (1977)

Tappolet, Christine. *Emotions, Values, and Agen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6)

Wedgewood, Ralph. "Sensing Valu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3:1 (2001)

Yang, Sunny. "Do Emotions Have Directions of Fit?", *Organon F* 23:1 (2016)

Abstract

On the Concept of Emotion as Evaluation

- Defending the Attitudinal Theory -

Kim, Min Geo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scholarly interest towards emotion is as high as ever. This is based on how emo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central subjects of philosophy due to many philosophers intensely inquiring into the problem of emotion. But it only seems difficult to draw an agreed theory on the nature of emotion. Why is emotion bound to be a philosophically difficult issue? The reason probably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central problems of philosophy of mind, epistemology, philosophy of language, and ethics are condensed in the subject of emotion. That is, being so closely associated with belief, sensation, perception, action, and moral judgment, emotions are phenomena manifesting itself in such highly diverse and complex ways that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account that

can generally be agreed upon.

Still, contemporary debates on emotion seem to have reached one important milestone. That is the idea that emotions are kinds of *evaluations* towards the world. Notably, recent philosophers in analytic tradition have begun to make sense of this idea of emotions as evaluations by utilizing the analysis that emotions relate to *values*. I believe this analysis in itself is a demonstration of an important recent development in philosophy of emotion. But there are still many points of disagreemen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emotions relate to values through cognitive states such as belief or judgment still tends to divide modern theories of emotion into the cognitivist and non-cognitivist camps. According to the former, emotions are evaluations in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are nothing but evaluative beliefs or value judgements. Whereas according to the later, it is because they are essentially perceptions of value properti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determine how the relation between emotions and values is to be established, and so in what sense emotions can appropriately be understood as 'evaluations.' For this purpose, I first critically review major contemporary emotion theories from the relatively fresh perspective of relation between emotions and values. I then present and defend the 'attitudinal theory', a proposal most notably developed by Deonna and Teroni. In doing so, I hope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new possibility of connecting emotions and values in a direction that fundamentally resolves the confrontation between cognitivism and non-cognitivism.

Chapter I is for specifying the scope of the emotion concept we will be investigating. To this end, I present intentionality, phenomenology, and rationality as emotion's three central features. These features not only distinguish emotions from feelings, moods, sensations, desires, emotional dispositions and so on, but they also

function as providing essential criteria for assessing any given theory of emotion presented in the paper.

In chapter II, cognitivism, which can be viewed as one of the first modern approach to theorize emotions as evaluations, is examined. Cognitivist theory establishes a systematic relation between emotions and values by reducing emotions into cognitive states capable of apprehending various values, and as a result, holds a particular strength in accounting for the problems concerning intentionality and rationality of emotion. But cognitivist theory is revealed to be seriously problematic in accommodating emotions of conceptually unsophisticated beings, as well as the so-called 'recalcitrant emotions' in which the subject's actual emotion and judgment conflict one another. I argue that the problem fundamentally lies in the fact that the cognitive states postulated by varying degrees of cognitivist theories cannot accommodate non-conceptual content. As to the reason why the phenomenology of emotion cannot satisfactorily be accounted for, I investigate how cognitivism is inherently incapable of providing explanatory resources to process both intentionality and phenomenology of emotion in a unified and integrated way.

Chapter III examines the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which, by adopting perceptual states instead of cognitive states as the essential component of emotion, is often understood to be a more suitable approach for dealing with non-conceptual content, as well as providing a model for processing both intentionality and phenomenology of emotion. Classifying the theory into direct and indirect model, I show that the direct model i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cannot sufficiently explain the causally intentional relations that emotions have with its various kinds of cognitive bases. In the case of the indirect model, I argue that its core argument that bodily changes have representational

relations with value properties creates a dissonance with some important facts about emotion's intentionality.

After all, through the analysis and assessment in chapter II and III, I argu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flaw with the way existing theories have taken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values – namely the way emotions are assimilated into single types of mental states of either cognition or perception. This is because, whether it be belief or perceiving, insofar as these states are regarded as having only either conceptual or non-conceptual contents, it is inevitable that these theories will always have structural limitations in accounting for various emotional phenomena.

So,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 way to accommodate both conceptual and non-conceptual content is needed. In chapter IV, I thus present and defend Deonna and Teroni's attitudinal theory as a suitable approach to do thi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theories, attitudinal theory argues that emotions relate to values not in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are a single type of mental state with evaluative contents, but rather in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are themselves distinct types of evaluative attitudes. I believe this shift of theorizing emotions as evaluations from the level of content to the level of attitude is a significant move as it provides a new conceptual framework on which emotions and values are connected. Of course, this new approach is not without its criticism and doubts, especially those coming from perceptual theorists. However, with the help of Muller's modified understanding, I argue that the new framework put forward by the attitude theory can flexibly and convincingly deal with those objections.

Keywords: Emotion, Philosophy of Emotion, Analytic Philosophy, Philosophy of Mind, Cognitivism, Non-cognitivism
Student Number: 2017-26044